

《素問·靈樞》에 나타난 耳鳴에 대한 研究

변석미 · 탁명림 · 강나루 · 고우신 · 윤화정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과학교실

A Study on the Tinnitus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黃帝內經》

Seok-Mi Byun · Myoung-Rim Tark · Na-Ru Kang · Woo-Shin Ko · Hwa-Jung Yoon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innitus of Plain Questions 《素問》 and Miraculous Pivot 《靈樞》.

Methods : We conducted a study on the original text paragraphs of Internal Classic 《內經》 containing the tinnitus and analysis of Yang, Ma, Zhang, Wang etc. We drew a parallel between tinnitus from Internal Classic 《內經》 and matching diagnoses from western medicine.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innitus in Plain Questions 《素問》 Tong Pyeong Heo Sil Ron 《通評虛實論》 was similar to the symptoms of diabetes mellitus complication and schizophreniform disorder in western medicine.
2. Liver fire tinnitus in Plain Questions 《素問》 Yuk Won Jeong Gi Dae Ron 《六元正紀大論》 was similar to the symptom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western medicine.
3. Phlegm fire tinnitus in Plain Questions 《素問》 Ji Jin Yo Dae Ron 《至真要大論》 was similar to the symptoms of meniere`s disease and malfunction of autonomic nervous system in western medicine.
4. Blood deficiency tinnitus in Miraculous Pivot 《靈樞》 Sa Gi Jang Bu Byeong Hyeong 《邪氣藏府病形》 was similar to the symptoms of anemia in western medicine.
5. Tinnitus in Miraculous Pivot 《靈樞》 Gyeong Geun 《經筋》 was similar to the myofascial pain syndrome of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 and the masseter muscle in western medicine.
6. Gallbladder deficiency tinnitus in Miraculous Pivot 《靈樞》 Gwol Hyeong 《厥病》 was similar to the symptoms of otitis media and labyrinthitis in western medicine.
7. Kidney deficiency tinnitus in Miraculous Pivot 《靈樞》 Gyeol Gi 《決氣》 and Hai Ron 《海論》 was similar to the symptoms of degenerative auditory organ in western medicine.
8. Tinnitus in Internal Classic 《內經》 showed close relations with the symptoms of the wind character.

Conclusion : We analyzed the original text paragraphs of Internal Classic 《內經》 and explanations about tinnitu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mpare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iagnoses to develop better treatments for tinnitus.

Key words : Tinnitus, Internal Classic 《內經》, Plain Questions 《素問》, Miraculous Pivot 《靈樞》, Wind(風), Hypoacusis, Dizziness.

1. 緒 論

耳鳴은 難聽, 眩氣症과 더불어 중요한 聽器 증상의 하나로서, 외부의 자극 없이 귀나 머리에서 들리는 청각적 자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각계의 자연적인 활동의 결과이지만, 꾸준히 들리는 소리를 모두 耳鳴이라고 하지는 않고, 단지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심하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리가 있을 때 耳鳴이라고 정의 한다¹⁾.

耳鳴은 전체 인구의 약 17%, 특히 노인층에서는 1/3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며, 최근 인구의 노령화와 산업사회 발달로 인한 소음, 복잡한 사회 환경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耳鳴 환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2,3)}.

耳鳴은 임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어 환자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감지되는 객관적인 耳鳴과 자신만이 소리를 느끼는 주관적인 耳鳴이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각적 耳鳴의 원인으로서는 구지, 외이도 이물 등의 외이도질환, 고막 천공, 급성 또는 만성 중이질환, 메니에르병, 난청 등의 내이질환과 청신경종양 같은 뇌종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에 동반될 수 있다. 타각적 耳鳴은 이관의 이상개방, 연구개근의 경련, 동정맥류 등이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4,5)}. 耳鳴의 종류는 ‘위-잉’, ‘썩-’, ‘우-웅’, ‘빠-’, ‘찌-’ 등 표현이 다양하며, 耳鳴에 대한 환자의 반응은 크기와 성상과도 관계가 있으나 환자의 정신적, 성격적 스트레스 즉, 불안, 우울, 초조 및 수면장애 등과 관련이 깊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주관적 자각 증상이므로 증상의 경중을 객관화하기 어렵다^{6,7)}.

耳鳴에 대한 현대 의학적 치료 방법은 내이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청신경에 이상 흥분이 발생한다는 순환장애설에 입각하여 혈관확장제나 항응

고제가 치료제로 쓰여 지고 있으며, 이외에 국소마취제, 항경련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와 耳鳴차폐법, 최면요법, 정신치료, 수술요법 등 치료방법이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못 내리고 있다⁸⁾.

韓醫學에서의 耳鳴은 “耳中鳴”, “耳數鳴”으로 언급되었으며 《內經》에 처음 기재된 이래로 여러 의가들에 의해 그 원인 및 증상, 치료에 관한 언급이 있어왔으나 실제 임상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에 의한 耳鳴의 치료는 서양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內經》에서는 耳鳴의 원인을 “腸胃之所生”, “陽氣萬物盛上而躍”, “胃中空則宗脈虛”, “髓海不足”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運氣學적인 원인도 언급되어 있다. 후세에서는 이를 氣虛耳鳴, 血虛耳鳴, 腎虛耳鳴, 風熱耳鳴, 痰火耳鳴으로 분별하였고⁹⁾, 巢元方¹⁰⁾과 孫思邈¹¹⁾은 腎虛를 주된 원인으로 보았고 朱震亨¹²⁾과 李梴⁹⁾은 痰火가 耳鳴의 주된 원인이라 주장하였다. 크게 實證과 虛證으로 분류하자면 耳鳴이 지속적이고 크며 폐색감을 동반하는 경우, 혹은 손으로 按壓했을 때 소리가 더욱 심해지면 實證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耳鳴이 간헐적이거나 勞倦할 때 혹은 야간에 심해지면서 손으로 按壓하면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虛證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¹³⁾.

耳鳴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헌적 연구와 임상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문헌적 연구에 따르면 신¹⁴⁾이 耳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臟腑와 經絡은 肝, 膽, 胃, 膀胱과 足少陽膽經, 足太陽膀胱經, 手少陽三焦經, 手太陽小腸經,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手厥陰心包經이라 보고하였으며, 김¹⁵⁾은 역대 의가들의 문헌들을 조사, 연구한 결과 耳鳴의 원인에 있어서는 腎虛, 氣虛, 痰火, 精氣虛의 순으로 언급되었으며, 內服藥으로는 六味地黃湯, 當歸龍薈丸이 多用되었고, 外用藥으로는 生烏頭, 生地黃의 순으로 多用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임상적 연구에서 김¹⁶⁾이 14명의 耳鳴환자

교신저자 : 윤화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산45-1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과부과
 (Tel : 051-850-8658, E-mail : yhj1226@deu.ac.kr)
 • 접수 2010/03/05 • 수정 2010/03/25 • 채택 2010/04/05

에게서 10회 이상의 鍼治療 후 유의한 호전을 보임을 보고 하였고, 최¹⁷⁾는 34명의 耳鳴환자에서의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로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를 가져온다는 임상적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 김¹⁸⁾은 耳鳴을 風熱型, 肝火型, 痰火型, 腎虛型, 氣虛型으로 나누고 각각의 치료 효과를 관찰한 바 脾胃虛弱으로 인한 氣虛型의 치료율이 가장 높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韓醫學 최고의 의서인 《內經》에 나온 耳鳴의 기전과 원인에 대해 자세히 연구된 보고는 접하지를 못하였다.

이에 저자는 耳鳴의 한의학적 원인과 기전을 더 정확히 연구하기 위하여 《內經》에 나오는 耳鳴과 관련된 原文과 역대 주자들의 註釋을 참고하여 耳鳴의 기전과 원인에 대하여 연구 고찰 하려고 한다.

II. 研究方法

耳鳴에 관련된 《黃帝內經 素問》, 《靈樞經》의 내용을 具體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耳鳴이 포함된 단락을 구분하여 校註를 달고 直譯을 하였다.

研究資料

번호	저자	년대	서명	約
1	楊上善 ²⁵⁻²⁶⁾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王 冰	唐	黃帝內經素問	王
3	吳 崑 ²⁷⁾	明	黃帝內經素問吳注	吳
4	馬 蒔 ²⁸⁾	明	黃帝內經素問靈樞注證發微	馬蒔
5	張介賓 ²⁹⁾	明	類經	景岳
6	張志聰 ³⁰⁾	清	黃帝內經集注	張
7	黃元御 ³¹⁾	清	黃元御醫書十一種	黃
8	高世植	清	素問直解	高
9	山東省中醫學院	1958	黃帝內經素問白話解	白話解
10	楊維傑 ³²⁾	1976	黃帝內經 靈樞譯解	
11	李慶雨	1995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12	李慶雨	2000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13	蔡英肆 等	2001	素問研究集成	
14	金達鎬, 李鍾馨	2001	注解補注 黃帝內經素問	
15	金達鎬	2002	注解補注 黃帝內經靈樞	

가. 原文은 唐代的 王冰이 注하고 宋代的 任億 等 이 校正한 《欽定四庫全書·黃帝內經素問》¹⁹⁾과 唐代的 王冰이 注하고 史崧이 校正한 《欽定四庫全書·靈樞經》¹⁹⁾에 準하였다.

나. 校註는 아래 15種 文獻의 註釋들 가운데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중 가장 適合하다고 인정되는 註를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의 《素問研究集成》²⁰⁾, 李의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²¹⁾과 《編注譯解 黃帝內經 靈樞》²²⁾, 金의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²³⁾과 《注解補注 黃帝內經 靈樞》²⁴⁾를 참고하여 國譯하고 그 原文들은 脚註를 달아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다. 直譯은 原文 解讀에 充實하도록 하였으며,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의 《素問研究集成》, 李의 《編注譯解 黃帝內經 素問》과 《編注譯解 黃帝內經 靈樞》, 金의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과 《注解補注 黃帝內經 靈樞》를 참고하였다.

라. 本文獻에 使用한 符號는 校註에 [], 引用文獻에 ◇, 引用篇名에는 < >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마. 本論文의 研究資料 및 校勘에 引用한 文獻은 아래와 같다.

III. 研究內容

1. 素問

1. 1. 通評虛實論 第二十八

【原文】

凡治消癯(1)擊偏枯痿厥氣滿發逆 甘肥貴人則高粱之疾也. 隔塞閉絕 上下不通則暴憂之病. 暴厥而聾偏閉塞不通 內氣暴薄也. 不從內外中風之病 故瘦留著也(1). 蹠蹠寒風濕之病也.

黃帝曰 黃疸暴痛癲疾厥狂 久逆之所生也(2). 五藏不平 六府閉塞之所生也(3). 頭痛耳鳴 九竅不利 腸胃之所生也(4).

【校註】

[1] 不從內外中風之病 故瘦留著也. : 王, 景岳(1)은 “外風이 사람에 맞음에 저장되어 사라지지 않으면, 陽氣가 안에서 風邪를 받아 熱이 되어 밖으로 타 올라 肌肉이 消燼하므로, 肉分에 머물러 逼迫하여 消瘦해져서 皮膚가 筋骨에 달라붙는다.”고 하였으나, 張(2)은 “가령 안으로부터의 憂愁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바람에 맞아 夭折하는 病을 앓는 것은 形體가 弱하고 氣도 衰해서 담장의 기반이 낮고 엷은 것이므로 肌肉이 마르며 皮膚가 바짝 달라붙는다.”고 하였다(21).

[2] 黃帝曰 黃疸暴痛癲疾厥狂 久逆之所生也 : 王(3)은 “足三陽經은 頭部에서 足部로 走行하나 經脈의 氣가 오랫동안 上逆하여 下行하지 않아 上焦에 鬱結하게 되므로 黃疸, 暴痛, 癲疾, 厥狂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張(4)은 “黃疸은 濕熱이 내부의 鬱結되어 외부로 色이 나타나는 병이고, 暴痛은 五臟의 氣가 和平하지 못하여 돌연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며, 厥狂은 陰陽이 편승되어 생긴 질병이다. 이는 모두 陰陽五行의 氣가 오랫동안 上逆하여 調和하지 못하므로 생기는 병이다.”고 하였다(20). 그 외에 楊, 景岳, 黃(5)은 “이 다섯 가지 病은 氣가 오랫동안 逆하여 발생한 것이다.”고 하였다.

[3] 五藏不平 六府閉塞之所生也. : 馬蒔, 楊, 王, 景岳(6)은 “六府라는 것은 物을 傳化시키기만 하고 貯藏하지는 않으므로 實하기는 하되 그득히 채우지는 못하며, 五藏이라는 것은 精氣를 貯藏하기만 하고 瀉하지 않으므로 그득히 채워지기는 하되 實할 수는 없다. 五藏은 본래 六府와 서로 表裏가 되는데, 지금 음식이 알맞지 못하여 吐하고 泄瀉함이 節度를 지나침에, 六府가 그 化한 物質을 傳할 수 없게 되어 六府가 閉塞하게 되니, 즉 五藏도 역시 和平하지 못하므로 각각의 病이 생긴다.”고 하였고(21), 黃(7)은 “五臟이 和平하지 않으면 六府가 閉塞되어 脾肺의 濕이 왕성하게 되어 升降의 기운이 倒置되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① 王: 外風中人伏藏不去 則陽氣內受爲熱外燔肌肉消燼 故留薄肉分消瘦而皮膚著於筋骨也.
景岳: 有病 不從內而外中風寒 藏蓄不去 則伏而爲熱 故致燔燼消瘦 此以表邪留薄 著於肌肉筋骨之間也.

② 張: 如不從內之憂怒 外之中風 而多病夭者 此緣形弱氣衰 壅基卑薄 故肌肉瘦而皮脈薄著也.

③ 王: 足之三陽 從頭走足 然久厥逆 而不下行 則氣佛積於上焦 故黃疸暴痛 癲狂氣逆矣.

④ 張: 黃疸者濕熱內鬱色病見於外也 暴痛者五臟之氣不平 卒然而爲痛也 癲疾厥狂 陰陽偏勝之爲病也 此陰陽五行之氣 久逆不和之所生也.

⑤ 楊: 此之五病 氣之久逆所生. (太素 卷三十 久逆生病)
景岳: 此以氣逆之久 而陰陽營衛 有所不調 然後成此諸證 皆非一朝所致也. (類經 疾病流 雜病所由)
黃: 黃疸暴痛 癲疾厥狂 是膽胃不降 久逆之所生也. (素問懸解 奇病論 四十五)

⑥ 馬蒔: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寔而不能滿 五藏者藏精氣而不瀉 故滿而不能寔 五藏本與六府相爲表裏 今飲食失宜 吐利過節 以致六府不能傳其化物 而六府閉塞 則五藏亦不和平 各病自生也.
楊: 六府水穀氣 傳五臟 故六府閉塞 藏不平也. (太素 卷三十 六府生病)
王: 飲食失宜 吐利過節 故六府閉塞 二令五臟之氣不和平也.
景岳: 六府閉塞 則水穀無以化 津液無以行 精氣失所養 故五藏有不平矣. (類經 疾病流 雜病所由)

⑦ 黃: 五臟不平 六府閉塞 是脾肺濕旺 升降倒置之所生也. (素問懸解 奇病論 四十五)

[4] 頭痛耳鳴 九竅不利 腸胃之所生也. : 馬蒔, 王, 黃^⑧은 “大腸은 傳導해주는 府이며, 小腸은 받아서 담는 府이며, 胃는 水穀을 받아 저장, 관리해주는 府이다. 지금 腸胃가 막히면 昇降出入하는 脈道가 막히게 되므로 頭痛, 耳鳴하고 九竅不利하는 여러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²¹⁾. 景岳, 楊^⑨은 “頭部의 귀 등 九竅에는 모두 手足陽明經脈이 이르게 되므로 病이 腸胃로부터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나 腸胃의 二字는 실제로는 六腑를 겸해서 말한 것이다. 六腑는 모두 三陽에 속하니 三陽의 氣가 九竅에 두루 편재되어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白話解^⑩는 “五臟六腑가 不通하면 上下의 氣가 순조롭게 통할 수 없어 腸胃도 따라서 정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頭痛 耳鳴 등 九竅가 모두 通利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하였다²⁰⁾.

【直譯】

무릇 消痺, 仆擊, 偏枯, 痿厥, 氣逆上滿을 치료함에 있어서 肥貴한 사람이면 膏粱珍味를 먹어서 생긴 질병이고, 氣가 隔塞하여 不行하고 上, 下焦가 不通함은 갑자기 심한 憂愁로 인한 질병이고, 氣가 갑자기 上逆하여 耳聾하고 한쪽이 閉塞하거나 大小便이 不通하는 것은 內氣가 갑자기 逼迫한 것이고,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風邪가 侵襲하여 발생한 병은 消瘦하는데 이는 邪氣가 留著한 것이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은 風寒濕 三邪에 의한 병입니다.

黃帝가 말씀하기를, 黃疸, 暴痛, 癩疾, 厥狂의 질병은 氣逆이 오래되어 생긴 것이고, 五臟이 평온하

지 못한 것은 六腑가 閉塞되어 생기는 것이고 頭痛, 耳鳴이나 九竅不利는 腸胃에서 생긴 것입니다.

【考察】

“不從內外中風之病 故瘦留著也.”에서 王과 景岳은 “陽氣가 안에서 風邪를 받아 熱化되어 밖으로 타올라 肌肉이 消燼하므로, 肉分에 머물러 逼迫하여 消瘦해져서 皮膚가 筋骨에 달라붙는다.”고 설명하여 外風에서 비롯된 熱化된 증상으로 보고 있지만, 張은 “바람에 맞아 夭折하는 병을 앓는 것은 이미 形體가 弱하고 氣도 衰하여 담장의 기반이 낮고 얇은 것이므로 肌肉이 마르며 皮膚가 바짝 달라붙는다.”고 하여 外邪가 이미 精虛하기 때문에 침입한 것으로 해석하여 虛에서 비롯된 증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가들의 주장이 實證과 虛證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언컨대 外感은 기본 ‘虛邪賊風’이라 하여 신체의 虛한 상태를 바탕으로 적중되는 것이므로 張의 주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黃帝曰 黃疸暴痛癩疾厥狂 久逆之所生也.”에서 王은 頭部에서 足部로 주행하는 足三陽經의 氣가 오랫동안 上逆하여 下行하지 않아 上焦에 鬱結하게 되므로 黃疸, 暴痛, 癩疾, 厥狂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증상들을 經脈과 氣의 상관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張의 경우에는 黃疸는 濕熱이 내부에 鬱積되어 생기는 것으로, 暴痛은 五臟의 氣가 和平하지 못하기 때문에, 厥狂은 陰陽이 偏勝되어 생기는 것으로 즉, 陰陽五行의 氣가 調和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설명하였고, 이 외에 景岳은 陰陽榮衛의 不調和, 黃은 膽胃氣運의 不降에서 생기

⑧ 馬蒔: 大腸爲傳導之府 小腸爲受盛之府 胃爲倉廩之府 今腸胃否塞 則升降出入 脈道阻滯 故爲頭痛爲耳鳴 爲九竅不利 諸症所由生也.

王: 腸胃不塞則氣不順序 氣不順序則上中下外 互相勝負 故頭痛耳鳴九竅不利也.

黃: 頭痛耳鳴 九竅不利 是胃逆腸陷 濁氣堤塞之所生也. (素問懸解 奇病論 四十五)

⑨ 景岳: 頭耳九竅皆手足陽明經脈及故病由腸胃之所生 然腸胃二字實兼六腑爲言 蓋六腑俱屬三陽三陽偏於九竅.

楊: 腸胃之脈 在頭 在於七竅 故腸胃不利 頭竅病也. (太素 卷三十 腸胃生病)

⑩ 白話解: 五臟六腑不通 則上下之氣 卽不能通順腸胃 因而失常了 因此形成了頭痛耳鳴九竅均不通的現象.

는 것으로 보았다.

“五藏不平 六府閉塞之所生也.”에서 馬蒔를 비롯한 여러 제가들은 음식이 알맞지 못하여 六腑가 그 化物을 전할 수 없게 되어 閉塞되면 五臟도 역시 和平하지 못하여 病이 생긴다고 보아 六腑에서 부터 시작된 病이 五臟에까지 이르러 病이 악화된다고 해석하였지만, 黃은 “五臟이 和平하지 않으므로 六腑가 막히게 되어 이에 脾肺에 濕이 旺盛하게 되어 昇降의 기운이 倒置된다.”고 하여 근본문제는 五臟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內經》原文에서도 “五臟의 和平하지 못함은 六腑가 閉塞됨에서부터 생긴다.”고 하였고, 病의 진행단계상으로 보아도 陽에서 陰으로 전변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順理이므로 腑病에서 시작됨이 타당하다고 보아 黃의 註釋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된다.

“頭痛耳鳴 九竅不利 腸胃之所生也.”의 문장은 腸胃가 뜻하는 범위에서 주가들의 설명이 나뉘고 있다. 馬蒔는 “腸胃”를 胃, 小腸, 大腸으로 문자 그대로의 腸胃로 해석하였고, 景岳은 “腸胃二字實兼六腑爲言”이라 하여 腸胃는 六腑를 뜻한다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白話解에서는 腸胃는 결국 五臟六腑의 不通으로 해석하였다.

부언하건데 “黃帝曰” 이후의 문장의 배열순서가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病은 惡化되는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陽病에서 陰病으로 진행되어가는 것이 順理이므로 腸胃 또는 六腑의 閉塞으로 말미암아 五臟의 不調和가 일어나 이로 인해 頭痛, 耳鳴, 九竅不利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氣逆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黃疸, 暴痛, 癲疾, 厥狂의 병증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문단에서 설명한 耳鳴의 기전을 양방적인 기전과 명확하게 연결시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甘肥貴人則高粱之疾”에 해당하는 消瘴은 이³³⁾의 논문에서와 같이 당뇨병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병증으로 인식되며 많은 레는 아니지만 논문에서 조사한 23명의 당뇨병 환자 중 1명의 레에서 耳鳴을 당뇨병병증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癲狂症의 치험 레인 송³⁴⁾의 논문에서도 癲狂의 증상 중 耳鳴이 동반되어 있으나 癲狂症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耳鳴이 병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많은 증례의 축적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2. 脈解 第四十九

【原文】

太陽所謂腫腰脰痛者 正月太陽寅 寅太陽也. 正月陽氣出在上 而陰氣盛 陽未得自次也 故腫腰脰痛也. 病偏虛爲跛者 正月陽氣凍解 地氣而出也 所謂偏虛者 冬寒頗有不足者 故偏虛爲跛也^[1].

所謂強上引背者 陽氣大上而爭 故強上也^[2]. 所謂耳鳴者 陽氣萬物盛上而躍 故耳鳴也^[3].

所謂甚則狂巔疾者 陽盡在上而陰氣從下 下虛上實 故狂巔疾也^[4]. 所謂浮爲聾者 皆在氣也.

所謂入中爲瘡者 陽盛已衰 故爲瘡也. 內奪而厥則爲瘡俳 此腎虛也 少陰不至者 厥也.

【校註】

[1] 病偏虛爲跛者 正月陽氣凍解 地氣而出也 所謂偏虛者 冬寒頗有不足者 故偏虛爲跛也. : 楊, 馬蒔^①는 겨울의 寒氣가 남아 있어 陽氣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고, 王, 景岳^②은 經脈의 流注로만

① 楊: 正月已有三陽 陽氣出於地也 故洞解 先有三陰 故猶有冬寒 陽氣不足也 人身亦爾 半陽不足故偏虛 跛謂左腳偏跛也. (太素卷八 經脈病解)

馬蒔: 有所謂偏虛爲跛者 夫正月三陽用事 東風解凍地氣已出膀胱與正月相合 正以正月 寒氣未減而膀胱之氣 頗有不足 故爲偏虛而在一足爲跛也.

② 王: 以其脈 循股內後廉 合膕中 下循腓 過外踝之後 循京骨 至小指外側故也.

景岳: 正月 東風解凍 陽氣尙微 足太陽病有或左或右 偏虛爲跛者應三陽不足於下也 足太陽下行之脈 循腓膕 下出外踝之後 故有是證.

설명하였으며, 張, 高, 白話解^③는 冬令 寒水의 氣가 부족함으로 인해 所生하는 陽氣도 偏虛해서 病이 난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張^④은 “이것은 太陽의 기운은 겨울의 물 한가운데서 생겨나니 寒水의 기운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太陽의 기운 역시 虛하므로 偏虛하여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다. 무릇 正月에 陽氣가 얼음을 녹여 땅의 기운으로부터 올라와서 즉 陽氣가 당연히 자신의 차례에 성함에 이른바 偏虛해서 절름발이가 된다는 것은 또한 冬令 寒水의 氣가 부족함으로 인해 所生하는 陽氣가 偏虛해서 經脈에 병이 나게 됨을 말한다. 위의 문장은 陽氣가 미약하여 막고 누르는 시기요, 이 문장은 근본기운이 부족하여 소생의 기운 또한 虛한 것이고, 아래의 문장은 陽氣가 점차 성함을 논한 것이다.”고 하였다.

[2] 所謂強上引背者 陽氣大上而爭 故強上也. : 馬蒔, 楊, 王, 景岳, 張^⑤은 “이른바 ‘強上引背’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膀胱의 맥이 안쪽 눈초리에서 일어나 이마로 올라가 머리 꼭대기에서 交會하며, 그 가지는 머리 꼭대기로부터 耳上角에 이르며, 또 곧게 행하는 것은 머리 꼭대기로부터 腦로 들어가

이러지며 다시 나와 별도로 목으로 내려가고 肩膊 내로 이어져 척추를 끼고 허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陽氣가 크게 올라가서 다투는 것이 正月의 陽氣가 上昇하는 것과 같으므로 邪氣가 들어오면 強上引背하게 된다.”고 하였으나²¹⁾, 高^⑥는 “《素問》〈熱論〉에 ‘傷寒病 第一日에 巨陽이 邪氣를 받아 頭項痛, 腰脊強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것은 腰脊의 強直이 등을 타고 올라가 頭項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목이 뻣뻣하고 背가 당기는 것은 太陽의 陽氣가 심하게 上升하여 邪氣와 다투어 腰脊이 뻣뻣하고 위로 背까지 당긴다고 하였다.”고 하였다²⁰⁾.

[3] 所謂耳鳴者 陽氣萬物盛上而躍 故耳鳴也. : 張, 楊, 高^⑦는 “이는 陽氣가 더욱 왕성한 것을 말한 것이다. 春三月은 發陳하는 달이라, 天地의 氣가 모두 生하여 萬물이 영화롭고 天地萬物의 氣가 모두 왕성하게 올라가 跳躍하며 사람의 陽氣도 上部에서 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經脈의 기운이 위에서 旺盛하여 耳鳴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王, 景岳^⑧은 太陽經脈의 流注가 耳上角에 도달하기에 耳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高: 偏虛 猶偏枯 本經大奇篇 云腎壅則脾筋大跛 易偏枯 故申明所謂病偏虛爲跛者 正月陽氣始生地凍始解 地氣從下而上出也 其病偏虛者 腎主冬令之寒 冬寒頗有不足者 故偏虛而爲跛也 此言冬失其藏 至春有偏枯之跛病也. (素問直解)
白話解: 病偏虛而成足跛的原因 是因爲正月 地已解凍 地氣由下而上出 陽氣也隨而上出 但由於太陽寒水之氣冬藏不足 宅的根本已虛 太陽 就有偏虛之勢 太陽經脈 循行於兩足 太陽 既不能够適應外在的氣候 就循經發生病變 形成由偏虛而造成的一側偏枯之跛足也 就是亦冬氣 春爲痿厥的意思.

④ 張: 此言太陽之氣 生于冬令水中 寒水之氣有所不足 以致太陽之氣亦虛 而爲偏虛跛足也 夫正月陽氣解凍 從地氣而上出 則陽氣當自次而盛矣 言有所謂偏虛而跛者 又緣冬令寒水之氣 頗有不足以致所生之陽氣偏虛而爲經脈作病 上節 論陽氣微而爲時所遏抑 此論根氣不足而所生之氣亦虛 以下論陽氣之漸盛.

⑤ 馬蒔: 所謂強上引背 正以膀胱之脈 起目內眥上額交巔 其支者 縱巔至耳上角 又直者 從巔入絡腦還出 別下項循肩膊內 挾脊抵腰中 其陽氣大上而爭 與正月之陽氣上升者 同 故邪氣入之則爲強上引背也.
楊: 三陽向盛 與三陰戰 得大氣而上陰猶爭也. (太素 卷八 經脈病解)
王: 強上 謂頸項強也 甚則引背矣. 所以爾者 以其脈 從腦出 別下項背 故也.
景岳: 太陽之脈下項挾背 若陽氣大上而爭 則與三陽之氣上升者同 故爲強上引背也. (類經 疾病類 六經病解)
張: 強上引背者 頭項強而引于肩背也 太陽之脈 上額交巔 從巔別下項 挾背抵腰中 陽氣大上而爭擾于上 故 使其強上也.

⑥ 高: 本經熱論 云傷寒一日 巨陽受之 頭項痛腰脊強 是腰脊之強 上引于背而至頭項也 故申明所謂強上引背者 乃太陽陽氣大上而爭 故腰脊強而上引背也. (素問直解)

⑦ 張: 此言陽氣之更盛也 春三月所謂發陳 天地俱生 萬物以榮 天地萬物之氣 皆盛上而躍而人之陽氣亦盛于上 是以經脈上壅而耳鳴也.
楊: 正月陽氣令萬物勇躍鳴上故 生病氣上衝耳鳴也. (太素 卷八 經脈病解)
高: 《靈樞》〈經脈篇〉云手太陽之筋 其病 應耳中鳴 故申明所謂耳鳴者 乃陽氣萬物盛上而躍 躍則振動 故耳鳴也. (素問直解)

[4] 所謂甚則狂巔疾者 陽盡在上而陰氣從下 下虛上實 故狂巔疾也. 張, 楊, 景岳, 高^⑧는 “이것은 陽氣가 上部에 極盛한 것을 말한다. 이른바 狂巔疾을 앓는다는 것은 바로 陽氣가 上部에서 매우 심함에 陰氣가 아래로 쫓겨 내려가 陽氣와 상합하지 못하여 下虛上實해지므로 狂巔疾하게 되는 것이다. 本經 중에서 ‘陽이 盛하면 狂한다.’고 했으며, 또한 ‘氣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에 頭痛과 癲疾을 앓는다.’고 했던 것이다.”하였다²¹⁾. 이외에 馬蒔, 王^⑩은 經脈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直譯】

太陽經에 腰部와 臀部가 붓고 아프다고 한 것은 正月은 太陽이고 寅이며 寅은 太陽이니 正月에 陽氣가 나와서 上部에 있지만 陰氣가 旺盛하여 陽氣가 아직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腰部와 臀部가 붓고 아픈 것이다. 病이 偏虛하여 다리를 전다고 한 것은 正月의 陽氣에 解凍하여 地氣가 나오는데, 偏虛하다는 것은 겨울의 寒氣가 자못 不足하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虛弱하여 저는 것이다. 뒷목이 뻣뻣하고 등이 당긴다고 한 것은 陽氣가 크게 上升하여 다투기 때문에 뒷목이 뻣뻣한 것이다. 耳鳴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陽氣가 上部에서 旺盛하여 躍動하기 때문에 耳鳴이 발생하는 것이다. 甚하면 癲狂이 발생한다고 한 것

은 陽氣가 모두 上部에 있고 陰氣는 아래로 내려가 下部는 虛하고 上部는 實하기 때문에 癲狂이 발생하는 것이다. 陽氣가 떠올라 耳聾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病因과 病處가 모두 氣에 있는 것이다. 陽氣가 內部로 들어가면 병어리가 된다고 한 것은 旺盛하던 陽氣가 이미 衰弱해졌기 때문에 병어리가 되는 것이다. 內部에서 精을 빼앗겨 厥逆이 되면 瘡俳가 발생하니 이것은 腎虛하기 때문이다. 少陰經氣가 이르지 않으므로 厥逆한다.

【考察】

“病偏虛爲跛者 正月陽氣凍解 地氣而出也 所謂偏虛者 冬寒頗有不足者 故偏虛爲跛也.”에 대해 설명하는 주가들의 생각들을 살펴보면, 楊, 馬蒔는 “겨울의 寒氣가 남아 있어 陽氣의 부족으로 인해 偏虛하다.”고 보았고, 王, 景岳은 經脈의 流注로만 설명하였으며, 張, 高는 “冬令 寒水의 氣가 부족함으로 인해 所生하는 陽氣도 偏虛해서 病이 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楊은 겨울의 寒氣와는 관계없이 봄의 陽氣不足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나, 張과 高는 겨울의 閉藏하는 기능의 부족으로 所生하는 陽氣마저 부족한 것이라 하였다. 더욱이 張은 “上節論陽氣微而爲時所遏抑 此論根氣不足而所生之氣亦虛 以下論陽氣之漸盛.”이라 하여 陽氣의 盛함에 따른 증상을 論하여 앞뒤 문장의 의미를

⑧ 王: 以其脈 支別者 從巔 至耳上角 古爾.

景岳: 太陽支者 從巔至耳上角 陽邪上盛 故爲耳鳴也. (類經 疾病類 六經病解)

⑨ 張: 此言陽氣之盛極于上也 所謂狂巔疾者 乃陽氣盡盛于上而陰氣從之于下 不得與陽氣相和 下虛上實 故使狂巔疾也. 本經曰 陽盛則狂 又曰氣上不下 頭痛巔疾.

楊: 三陽爻與三陰爭而三陽俱盛 盡在于頭 爲上實 三陰在下 卽爲下虛 于是發病 脫衣登上 馳走妄言卽謂之狂 僵仆而倒 遂謂之巔也. (太素 卷八 經脈病解)

景岳: 巔癲同 按前章經脈篇足太陽經條下 作癲 蓋古所通用也 所謂甚者 言陽邪盛也 陽邪實於陽經則陽盡在上 陰氣在下 上實下虛 故當爲狂癲之病. (類經 疾病類 六經病解)

高: 經脈論云 足太陽所生病者 狂巔疾 故申明所謂甚則狂巔疾者 乃陽盡在上 而陰氣從下 陰氣從下則下寒 而虛陽盡在上則上熱而實 下虛上實 故有太陽經脈之狂巔疾也. (素問直解)

⑩ 馬蒔: 有所謂甚則狂巔疾者 正以陽氣者膀胱也 其脈自頭至足 陰氣者 腎氣也 其脈 自足至胸 正月以後 陽氣盡出于上而陰氣在下 其下本虛而上則實 膀胱之脈 上額交巔上 入絡腦 還出別下項 其支別者 從巔至耳上角 故 爲狂之病 如〈生氣通天論〉所謂陰不勝其陽則爲狂者 是也 又爲頂巔之病如爲頭痛眩冒沉重者 皆是也.

王: 以其脈 上額 交巔上 入絡腦 還出 其支別者 從巔 至耳上角 故狂 巔疾也 項上 曰巔.

함께 설명하고 있어 張의 註釋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所謂強上引背者 陽氣大上而爭 故強上也.”에서 王, 馬蒔는 足太陽膀胱經脈의 流注로 ‘強上引背’의 증상을 설명하였으나, 高는 《素問》〈熱論〉의 내용으로서 “太陽의 陽氣가 심하게 상승하여 邪氣와 다투게 되므로 腰脊이 뻣뻣하고 위로 背까지 당기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대부분의 주가들이 太陽經脈의 流注로 설명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高의 주장도 《素問》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인 설명가능하기에 참고할 만하다.

“所謂甚則狂巔疾者”에서 주가들은 ‘狂’字와 ‘巔’字의 해석에 관해서 엇갈린 주장을 하였다. 張과 高는 狂症과 癲症을 같은 陽症으로 보아 “陽氣가 上部에서 매우 심함에 陰氣가 아래로 쫓아 下虛上實해지므로 狂, 癲疾을 앓는다.”고 하였고, 楊은 狂症과 癲症을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것으로 “上部가 實하게 되고, 三陰은 아래에 있게 되니 즉 아래가 虛하게 된다. 이에 發病하여 옷을 벗고 높은 곳에 올라가며 마구 내달리고 망령되이 말하게 되는데 즉 이를 일러 ‘狂’이라고 하며, 엮어져 거꾸러짐을 일러 ‘巔’이라고 한다.” 하여 狂症은 陽症, 癲症은 陰症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馬蒔와 王은 狂症은 정신과적 증상이나 巔疾은 頂巔부위에 발생하는 병으로 보아

“正月 이후에 陽氣가 모두 위로 나오고 陰氣는 아래에 있어서 그 아래의 根本은 虛하고 위에는 實하여 狂病이 발생하고, 頂巔에 발생하는 병은 예를 들면 頭痛, 眩暈, 沈重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하였다.

1. 3. 五常政大論 第七十

【原文】

厥陰司天 風氣下臨 脾氣上從 而土且隆 黃起水洩 眚土用革 體重 肌肉痿 食減口爽 風行太虛 雲物搖動 目轉耳鳴^[1] 火縱其暴 地迺暑 大熱消爍 赤沃下 蟄蟲數見 流水不冰 其發機速^[2].

【校註】

[1] 土用革 體重 肌肉痿 食減口爽 風行太虛 雲物搖動 目轉耳鳴. : 高, 王, 馬蒔, 景岳, 張^①은 “風木の氣가 왕성하면 土가 變革을 일으킨다. 몸이 무겁고 肌肉이 마르는 것은 脾病이다. 음식이 줄어들어 口가 상쾌한 것은 음식량이 줄어야 口中이 상쾌한 것으로 이것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口中이 不和한 것이니 脾病이다. 風氣가 위에 있다는 것은 風氣가 공중에 있으면 구름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는 눈앞이 돌고 귀가 울리는 것이다.”고 하였다²¹⁾.

[2] 火縱其暴 地迺暑 大熱消爍 赤沃下 蟄蟲數見 流水不冰 其發機速. : 高, 王, 馬蒔, 吳, 景岳, 張^②

① 高: 風木氣盛故土用革 革變革也 體重肌肉痿 脾病也 食減口爽 言所食減少則口中乃爽 以明飽食則口中不和 亦脾病也 風氣在上 則風行太虛 雲物搖動 其在于人 則目轉耳鳴. (素問直解)
王: 巳亥之歲候也. 土隆土用革謂土氣有用而易其體 亦謂土功事也. 雲物搖動是謂風高 此病所生天之氣也.
馬蒔: 木盛則土必受革 爲體重 爲肌肉痿 爲食減 爲口爽 皆脾病也 且風行太虛 而雲物搖動 風之象也 爲民病 又有爲目轉 爲耳鳴 皆肝膽之木爲病也.
景岳: 然土爲木制 故土用受革 脾經爲病 而風雲動搖 皆天氣之所生也. (類經 運氣類 天氣地氣制有所從)
張: 土從木化則受氣勝制 故土用變革而體重食減之脾病也 目轉耳鳴 風淫于上也 土用革者 謂風氣在上而土革于下也.
② 高: 厥陰司天 則少陽在泉 少陽火氣也 故火縱其暴 而地乃暑 暑猶熱也 地暑則大熱消爍 津液受熱 則赤沃下. 火氣主開 故蟄蟲數見 火性溫熱 故流水不冰 火體急暴 故其發機速. (素問直解)
王: 少陽在泉 火監于地 而爲是也. 病之宗兆 地氣生焉. 少陽厥陰之氣變化卒急 其爲疾病速者發機故曰其發機速.
馬蒔: 然厥陰司天 則少陽相火在泉也 火縱其暴 地乃熱 大熱燦萬物之赤沃下 及蟄蟲見 流水不冰皆熱盛故耳.
吳: 少陽相火在泉 故氣化皆火也 赤沃下 小便出血也 火性急疾 故其發也如機之速.
景岳: 凡厥陰司天 則少陽在天 相火下行 故其氣候如此 赤沃下者 霖雨多熱 受赤氣也 其發機速相火之發 暴而速也 皆此地氣之所生者. (類經 運氣類 天氣地氣制有所從)
張: 厥陰風木司天 則 少陽相火在泉 木火相生 故火縱其暴 地乃暑者 太陰濕土 亦暑熱也 赤沃下者 雖沃若之 木葉亦焦赤而下

은 “厥陰이 司天하면 少陽이 在泉하니 少陽은 火氣이므로 火가 제멋대로 그 포악함을 드러내니 地가 이에 暑해진다. 暑는 熱과 같다. 땅이 熱하면 큰 熱이 津液을 말리고, 津液이 熱을 받으면 나뭇잎이 붉게 타 떨어진다. 火氣는 여는 것을 주장하므로 蟄蟲이 자주 나타난다. 火의 성질은 溫熱하므로 흐르는 물이 얼지 않는다. 火의 體는 急暴하므로 그 發機함이 빠르다.”고 하였다.²¹⁾

【直譯】

己亥년은 厥陰이 司天하여 風氣가 땅에 臨하니 인체에서는 脾氣가 위로 天氣(風木)를 따르고 자연계에서는 土氣가 일어나 왕성하게 되면 水氣가 재해를 입는다. 만약 土의 作用에 변동이 생기면 體重 肌肉萎縮 飲食減少 口味減退 등이 쉽게 발생한다. 공중에서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이니 인체에서는 目轉과 耳鳴이 있게 된다. 火氣가 그 포악함을 행하여 무더우며 大熱로 인해 마르고 불타며 나뭇잎도 역시 붉게 타들어가면서 떨어지고 蟄蟲이 자주 보이며 강물이 얼지 않고 질병이 신속하게 발생한다.

【考察】

“土用革 體重 肌肉痿 食減口爽 風行太虛 雲物搖動 目轉耳鳴”에서 厥陰風木이 司天하는 己亥년에는 體重 肌肉痿 食減口爽의 脾病과 目轉耳鳴같은 상부의 질환인 肝膽之木爲病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대부분의 제가들이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

“火縱其暴 地灑暑 大熱消燬 赤沃下 蟄蟲數見 流水不冰 其發機速.”에서 “赤沃下”의 해석이 나뉘고 있는데, 大別하면 자연현상과 인체의 병증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는 景岳은 “赤沃下者 霖雨多

熱 受赤氣也.”라 하여 장맛비가 내리고 열이 많은 것으로 보았고, 張은 “赤沃下者 雖沃若之 木葉亦焦赤而下落矣.”라 하여 비록 기름진 것 같은 나뭇잎이라도 역시 붉게 타들어가면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이에 반해 인체의 병증이라 주장한 제가로는 吳가 “赤沃下 小便出血也”라 하였고, 高는 “津液受熱 則赤沃下.”라 하여 붉은 소변을 보는 것이라 하였다. 부연하건데 이 문장이 포함된 문단에서 본다면 첫째 문장인 “厥陰司天 風氣下臨 脾氣上從 而土且隆 黃起水迺滂.”은 자연의 이치인 運氣로서 대전제로 하고, 둘째 문장인 “土用革 體重 肌肉痿 食減口爽 風行太虛 雲物搖動 目轉耳鳴.”을 통해 해당하는 運氣年에 나타날 수 있는 인체의 병증들을 나열하였으며, 마지막 셋째 문장인 “火縱其暴 地灑暑 大熱消燬 赤沃下 蟄蟲數見 流水不冰 其發機速.”을 통해 해당 運氣年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의 현상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아 마지막의 ‘赤沃下’는 인체 병증보다는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1. 4. 六元正紀大論 第七十一

【原文】

木鬱之發 太虛埃昏 雲物以擾 大風迺至 屋發折木 木有變. 故民病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鬲咽不通 食飲不下 甚則耳鳴眩轉 目不識人 善暴僵仆^[1]. 太虛蒼埃 天山一色 或氣濁 色黃黑鬱若 橫雲不起雨而迺發也 其氣無常. 長川草偃 柔葉呈陰 松吟高山 虎嘯巖岫 佛之先兆也^[2].

【校註】

[1] 故民病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鬲咽不通 食飲不下 甚則耳鳴眩轉 目不識人 善暴僵仆. : 高, 景岳
①는 “木氣가鬱하면 곧 民病이 생기는데 胃脘에서

落矣 至冬令嚴寒之時 而蟄蟲不藏 流水不冰 火性速而少陽主樞 故其發機速 玉師 曰火從其暑 地乃暑 長夏之時也 赤沃下 秋令也 蓋亦從夏而秋 秋而冬也.

① 高: 木氣鬱故民病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鬲咽不通 飲食不下 此木淫 土虛病也. 甚則耳鳴 眩轉目不識人 善暴僵仆 此風淫 木虛病也. (素問直解)

心臟부위의 통증과 上支兩脇의 통증, 인후가 막혀 통하지 않아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木氣가 邪氣로 인해 병난 것으로 土虛病이다. 심하면 耳鳴과 어지럼증, 사람을 못 알아보며 갑자기 잘 쓰러지는데 이것은 風邪가 있는 木虛病이다.”고 하였다.

[2] 長川草偃 柔葉呈陰 松吟高山 虎嘯巖岫 佛之先兆也. : 景岳, 王, 吳, 張, 高²⁾는 “草偃은 풀 위에 바람이 불어옴에 반드시 풀이 쓰러져 누움이다. 呈陰은 연약한 잎들이 바람에 필려 바닥이 보이는 것이다. 松吟은 숲 사이에 바람소리가 나는 것이고 호랑이가 울부짖는 것이 곧 風이 생하는 것이니 風이 호랑이를 기 때문이다. 무릇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모두 木氣가鬱하여 장차 發하려 할 때 먼저 일어나는 徵兆이다.”고 하였다.

【直譯】

木氣가鬱結했던 것이 發하면 太虛가 埃昏하고 구름과 땅위의 萬物이 어지럽게 움직이며 거센 바람이 이에 이르러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지니 木氣에 災變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병은 胃脘 중에서 心에 해당하는 부위가 疼痛하고 兩脇肋部가 그득하며 咽部에 막힌 듯한 감각이 있고 飲食을 삼키지 못하며 심한 경우는 귀에 소리가 들리고 머리와 눈이 어지러우며 사물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자주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증상을 앓게 된다. 하늘이 어두컴컴하여 하늘과 산

이 하나의 색이 되거나 혹은 氣가 침침하여 누렇게 검은 色을 띠는 것이鬱結된 것 같으며 구름이 비록 옆으로 드리워 있을지라도 비를 내리지 않아 이에鬱結했던 것이 發하게 되니 그 氣가 일정하지 않다. 긴 강가에 풀이 바람에 눕고 부드러운 잎이 필리며 바닥을 보이고 소나무가 바람에 의해 높은 산에서 소리를 내어 호랑이가 높은 산 속에서 울부짖듯이 하니,鬱結함이 장차 발한 것임을 나타내는 佛의 징조이다.

【考察】

이 문단은 金氣가 木氣를 制約함이 강해 木氣가鬱結하여 나타나는 자연 현상과 인체의 병증을 논하였다. 木氣가鬱結함에 風氣가 크게 發하여 먼지가 자욱하고 구름이 드날리고 기둥과 나무가 부러지는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모두 木氣에 의한 變動이라는 것에 대한 주가들의 해석은 대부분 일치한다.

“故民病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隔咽不通 食飲不下 甚則耳鳴眩轉 目不識人 善暴僵仆.”는 木鬱이 發할 때 나타나는 인체의 병증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景岳은 모든 증상을 肝經 流注와 肝氣로만 설명하고 있으나, 高는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隔咽不通 食飲不下”는 ‘木淫土虛病’으로, 심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耳鳴眩轉 目不識人 善暴僵仆”은 ‘風淫木虛病’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耳鳴眩轉 目不識人 善暴僵仆” 木鬱之發에 의해 나타나는 木氣의 病으로

景岳: 此皆風木肝邪之爲病. 厥陰之脈 挾胃貫膈 故胃脘當心而痛隔咽不通 飲食不下也. 上肢兩脇肝氣自逆也. 肝經 循喉嚨 入頰頰 連目系 上會於巔 故爲耳鳴 眩轉 目不識人等證. 風木堅強 最傷胃氣 故令人善暴僵仆. (類經 運氣類 五鬱之發之治)

② 景岳: 草偃草上之風必偃也 呈陰凡柔葉皆垂 因風翻動而見葉底也 松吟聲在樹間也 虎嘯則風生 風從虎也 凡見此者 皆木鬱將發之先兆. (類經 運氣類 五鬱之發之治)

王: 草偃謂無風而自低 柔葉謂白楊葉也 無風而葉皆背見 是謂呈陰 如是皆通徵甚 甚者發速 徵者發徐也 山行之候 則以松虎期之原行 亦以麻黃爲候 秋冬則以梧桐蟬葉 候之.

吳: 呈陰 見其葉徐也 風從虎 故虎嘯風生.

張: 松吟高山 風之聲 虎嘯巖岫 虎嘯則風生 風從虎也 此木鬱將發之先兆也.

高: 偃仆也 呈陰背向面也 風生則長川草仆柔葉呈陰 甚則松吟高山而虎嘯巖岫 是木氣鬱佛之先兆 惟其鬱之 是以發之. (素問直解)

볼 수 있는 견해에서는 일치하지만,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膈咽不通 食飲不下”에서 景岳은 “抵小腹 挾胃屬肝絡膽 上貫膈布脇肋 循喉嚨之後”³⁵⁾하는 肝經의 流注 상 胃, 心, 咽에 이르는 부위에 증상을 發한 것임에 반해 高는 木剋土에 의해 발생된 土虛病으로 보아 두 주가들의 해석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長川草偃 柔葉呈陰 松吟高山 虎嘯巖岫 佛之先兆也.”는 木氣가 鬱結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나쁜 징조를 의미하는 자연현상으로 각 주가들의 해석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다.

이 문단과 앞의 〈五常政大論篇〉에서 설명한 耳鳴의 원인은 결국 ‘厥陰司天’과 ‘木鬱之發’의 시기에 발하는 것으로 厥陰風木, 肝木의 기운이 과도한 경우에 발현되는 증상이다. 肝木은 升發과 疏泄의 기능이 있어서 만약 마음을 뜻대로 펴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肝을 상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氣機의 升發과 疏泄에 영향이 미치면 肝鬱證이 발생하여 다른 증상과 더불어 耳鳴이 나타날 수 있다. 蔡¹³⁾가 분류한 耳鳴의 종류에서 忿怒를 잘 내거나 肝火가 왕성한 사람이 耳鳴을 비롯하여 수면장애나 불안, 안면홍조, 두통을 호소하며 弦脈이 나타날 경우 이를 肝火耳鳴으로 분류하고 있다.

耳鳴환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한 최⁷⁾는 수년 전부터 耳鳴환자에 있어서 여러 심리학적 요인이 관여하며 치료를 위해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즉, 불안, 우울, 초조 및 수면장애 등으로 耳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김³⁶⁾은 심박변이도 검사를 통해 교감신경 활성을 일으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難聽, 耳鳴, 眩暈과 같은 청각 현상 유발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스트레스와 厥陰風木, 그리고 耳鳴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原文】

厥陰所至爲縲戾^[1] 少陰所至爲悲妄衄衄^[2] 太陰所至爲中滿霍亂吐下^[3] 少陽所至爲喉痺耳鳴嘔涌^[4] 陽明所至皴揭^[5] 太陽所至爲寢汗瘧^[6] 病之常也.

【校註】

[1] 厥陰所至爲縲戾. : 景岳^①은 “厥陰木病은 筋에 있으므로 肢體로 하여금 綳縮하게 하고 어그러져 지탱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고, 高^②는 “戾는 어그러짐이니 小便이 주입되는 關門이 어그러짐이다. 縲은 縮이다. 厥陰의 脈이 陰毛 중으로 들어가 飲器를 지나므로 病나면 癢閉하므로 厥陰이 이르는 곳은 縲戾, 즉 소변의 關이 오므라들어 어그러져 小便不通이 된다.”고 하였다²¹⁾.

[2] 少陰所至爲悲妄衄衄. : 高^③는 “悲는 슬픈 것이고 心氣가 虛한 것이며 妄은 미쳐 날뛰는 것으로 心氣가 實한 것이다. 脈이 虛하며 熱이 있으면 衄이 되고, 脈이 虛하면서 寒氣가 있으면 衄이 되니 少陰은 心이 主하는 脈으로 少陰의 氣가 이르면 슬퍼하고 狂妄하고 코피가 많이 난다.”고 하였다.

[3] 太陰所至爲中滿霍亂吐下. : 景岳^④은 “土濕이 脾를 傷하게 했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高^⑤는 “中滿하여 上下가 通하지 않으면 癢亂, 嘔吐하므로 위로 넘치고 아래로 泄瀉한다. 手太陰은 위를 主하고

① 景岳: 厥陰木 病在筋 故令肢體綳縮 乘淚不支. (類經 運氣流 六氣正記十二變)

② 高: 戾는戾小便所注之關戾也. 縲縮也. 厥陰之脈 入毛中過陰器 病則癢閉 故厥陰所至爲縲戾. (素問直解)

③ 高: 悲悲哀心氣虛也 妄狂妄心氣實也 脈虛而熱則衄 脈虛而寒則衄 少陰屬心主脈 故少陰所至爲悲妄衄衄. (素問直解)

景岳: 火病於心而并於肺 故爲悲妄 火逼血而妄行 故鼻血爲衄 汚血爲衄. (類經 運氣流 六氣正記 十二變)

王: 衄汚血 亦脂也.

吳: 悽愴爲悲 謬亂爲妄 鼻血爲衄 汚血爲衄.

④ 景岳: 土濕傷脾也. (類經 運氣流 六氣正記十二變)

⑤ 高: 中滿則上下不交癢亂吐下則上涌下泄. 手太陰主上足太陰主下故太陰所至爲中滿癢亂吐下. (素問直解)

足太陰은 아래를 主하므로 太陰의 氣가 이르면 中滿하고 癢亂, 嘔吐, 泄瀉를 한다.”고 하였다.

[4] 少陽所至爲喉痺耳鳴嘔涌. : 高, 吳, 景岳^⑥는 “一陰一陽이 맺힌 것, 그것을 일러 喉痺라고 한다. 一陰은 厥陰이고 一陽은 少陽이다. 手足少陽의 脈은 모두 귀 뒤로부터 귀 안으로 들어가고 귀 앞으로 나오니, 經脈이 虛하면 耳鳴한다. 少陽의 樞轉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헛구역질하며 위로 吐하므로, 少陽의 기가 이르면 喉痺가 되며 耳鳴, 嘔涌, 胸痛하는 것은 手足陽明의 脈이 缺盆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래에서 막혔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5] 陽明所至皴揭. : 高, 王, 吳, 景岳^⑦는 “皴揭이라는 것은 陽明燥金의 성질이 升하여 皮膚가 터서 갈라지고 벗겨지는 것이다. 陽明의 기운이 이르게 되면 胸痛이 생기고 皮膚가 일어나고 갈라진다.”고 하였다.

[6] 太陽所至爲寢汗癢. : 景岳, 王, 吳, 高^⑧는 “寒水가 작용하므로 잠잘 때에 땀을 흘린다. <脈要精微論>에 ‘陰氣有餘 爲多汗身寒.’고 하니, 이에 해당한다. 肢體가 強直하고 筋이 急해지고 뒤틀림을 일러 癢이라 하는데 陰寒으로 凝滯하여 陽氣가 行해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다²⁰⁾.

【直譯】

厥陰의 氣가 이르는 곳은 筋脈이 오그라들고 뒤틀리며, 少陰의 氣가 이르는 곳은 슬피하고 狂妄하고, 코피가 많이 나고, 太陰의 氣가 이르는 곳은 腹部가 脹滿하고 霍亂 嘔吐 泄瀉를 일으키며, 少陽의 氣가 이르는 곳은 咽喉가 붓고 耳鳴과 嘔吐 증상을 일으키며, 陽明의 氣가 이르는 곳은 皮膚가 터서 갈라지고 벗겨지며, 太陽의 氣가 이르는 곳은 수면 중에 땀을 흘리고 癢攀을 일으키니, 이것이 六氣에 의해 이르는 疾病의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考察】

“厥陰所至爲縲戾.”에서는 ‘縲戾’의 해석에 의견이 나뉘는데, 景岳은 “厥陰木病은 筋에 있으므로 肢體로 하여금 縲縮하게 된다.”고 하여 근육 전체의 縲縮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반해, 高는 “戾는 어그러짐이니 小便이 주입되는 關門이 어그러짐이다. 縲은 縮이다.”하여 小便不通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부언하자면 肝主筋의 의미에서 본다면 筋의 縲縮으로 볼 수 있고, 肝經의 流注 상 살펴보면 “厥陰之脈 入毛中 過陰器”하므로 小便不通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주장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후의 문장에서도 景岳은 臟腑로서, 高는 經脈流注로서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少陰所至爲悲哀衄衄.”에서는 景岳은 火克金에 의한 心肺의 병

⑥ 高: 一陰一陽結謂之喉痺 一陰厥陰也 一陽少陽也 手足少陽之脈皆從耳後入耳中出走耳前 經脈虛則耳鳴 少陽樞轉不利 則乾嘔上涌 故少陽所至爲喉痺 耳鳴嘔涌胸痛者 手足陽明之脈 不能入缺盆而下膈。(素問直解)
吳: 喉痺喉痛也 涌食不下而上溢也 少陽之脈 循頸 故令喉痺 入耳中 故令耳鳴相火上炎故令嘔涌。
景岳: 相火上炎也 涌湧同。(類經 運氣流 六氣正記十二變)

⑦ 高: 皮裂曰皴 掀起曰揭 皴揭者 陽明燥勝 皮皴而掀起也 故陽明所至爲胸痛皴揭。(素問直解)
王: 身皮麤象。
吳: 燥金用事 則肝木鬱 故脇痛 皮裂爲皴 皮起爲揭 皆燥病也。
景岳: 燥金用事則肝木受傷 故脇痛皮膚甲錯而起 委皴揭 皆燥病也。(類經 運氣流 六氣正記十二變)

⑧ 景岳: 寒水用事 苦爲寢汗 <脈要精微論>曰陰氣有餘爲多汗身寒者是也 支體強直筋脈反戾曰癢陰寒凝滯而 陽氣不行也。(類經 運氣流 六氣正記十二變)
王: 寢汗 謂睡中汗發於胸膺掖之間也 俗誤呼爲盜汗。
吳: 寢汗 病臥而出汗也 癢 項背腰脊強直也 是爲傷寒。
高: 手太陽之脈 主液 所生病 寢汗 液虛也。足太陽之脈 主筋 所生病 癢 筋攀也。故太陽所至 爲寢汗癢。此亦六氣發病之常也。(素問直解)

증, 高는 手少陰心經의 병증으로 해석하였고, “太陰所至爲中滿霍亂吐下.”에서도 景岳은 土濕傷脾에 의한 병증, 高는 手足太陰經의 병증이라 주장하였다.

“少陽所至爲喉痺耳鳴嘔涌.”에서는 高는 手足少陽經으로 ‘喉痺耳鳴嘔涌’을 해석하였고, 또한 吳는 耳鳴은 少陽經 및 手足陽明經의 유주선상의 병증으로, 嘔涌은 相火上炎으로 설명하였다.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은 모두 耳中을 지나는 經脈이므로 流注상 耳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연구의 《靈樞經》에 나타난 ‘經脈을 원인으로 본 耳鳴’의 내용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 이 문장에서 언급한 少陽의 병증, 즉 耳鳴을 비롯한 喉痺, 嘔湧은 모두 相火上炎에 의한 증상으로 본래부터 痰火가 上部에 있을 때 忿怒 또는 과도한 정신적 자극이 있게 되면 氣上하여 耳內가 막힌 것 같고 耳鳴, 胸悶, 口燥, 聲音이 부드럽지 않고 몸이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는 痰火耳鳴과 매우 흡사하다¹³⁾.

“太陽所至爲寢汗瘧.”에서는 景岳, 王, 吳는 太陽寒水 및 臟腑陰陽으로 설명하였으나 高는 역시 手足太陰經脈으로서 병증으로 해석하여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1. 5. 至眞要大論 第七十四

【原文】

帝曰 六氣相勝奈何?

岐伯曰 厥陰之勝 耳鳴頭眩 憤憤欲吐 胃脘如寒 大風數舉 倮蟲不滋 祛脇氣并 化而爲熱 小便黃赤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腸鳴飧泄 少腹痛 注下赤白 甚則嘔吐 膈咽不通¹¹⁾.

【校註】

[1] 厥陰之勝 耳鳴頭眩 憤憤欲吐 胃脘如寒 大風數舉 倮蟲不滋 祛脇氣并 化而爲熱 小便黃赤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腸鳴飧泄 少腹痛 注下赤白 甚則嘔吐 膈咽不通. : 景岳, 王, 吳, 張, 高, 黃^①은 “厥陰이 勝함은 風邪가 왕성한 것이다. 耳鳴하고 頭眩하는 것은 肝脈이 頂巔部에 會合하고 風은 動을 주재하기 때문이다. 견잡을 수 없이 吐하러 하고 胃脘이 寒한 듯 하는 것은 木邪가 胃를 손상시켜 胃虛하여 寒氣가 生하기 때문이다. 倮蟲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土氣가 쇠약하기 때문이다. 祛脇에 氣가 并하는 것은 肝邪가 모인 것이다. 熱로 변화되어 小便이 黃赤한 것은 邪氣가 小腸을 침입했기 때문이다. 위로는 胃脘部에서 心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있으며 위로 兩脇部를 마치 나뭇가지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으며 嘔吐하게 하고 膈

① 景岳: 厥陰之勝 風邪盛也 耳鳴頭眩 肝脈會於頂巔而風主動也 憤憤欲吐 胃脘如寒 以木邪傷胃 胃虛生於寒 倮蟲不滋 土氣衰也 祛脇氣并 肝邪聚也 化熱而小便黃赤 邪侵小腸也 其在上 則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爲嘔吐 爲膈咽不通 在下 則飧泄少腹痛 注下赤白 皆肝經脈氣所及 而木邪乘於腸胃也. (類經 運氣類 六氣相勝病治)

王: 五已五亥歲也 心下齊上 胃之分 胃脘 謂胃脘之上 及大膈之下 風寒氣生也 氣并 謂偏著一邊 膈咽 謂食飲入而復出也.

吳: 厥陰之脈 循喉嚨之後 上項頰 連木系 與督脈會於巔 故耳鳴頭眩 憤憤 心不定貌 厥陰 風木也其氣上行而不靜 故憤憤欲吐 風木雖溫 未離於陰 故胃脘如寒 在天則木風數舉 在物則倮蟲不滋 厥陰之脈 布脇肋 故祛脇氣并 并 迸迫也 氣有餘則爲火 故化而爲熱 厥陰之脈 抵小腹 挾胃貫 布脇肋 故小便黃赤 胃脘當心而痛 上拒于兩脇 木氣乘于腸胃 故腸鳴飧泄 少腹痛 木氣乘于小腸 則注赤乘 于大腸則下白 氣血之分也 甚則厥陰上逆 令人嘔吐 風木不寧而逆 令人膈咽不通.

張: 耳鳴頭眩 木淫於上也 大風數舉 淫於下而上也 憤憤欲吐 胃脘如寒 胃土病也 倮蟲不滋 木制之也 祛脇氣并 肝氣聚也 化而爲熱 小便黃赤 木淫而生火也 風木氣勝 則脾胃受傷 故風氣淫於上則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甚則嘔吐 膈咽不通 淫於下則腸鳴飧泄 少腹痛 注下赤白 所謂風之傷人也 善行而數變.

高: 厥陰之勝 風氣勝也 風勝則耳鳴頭眩 鳴眩無定 則憤憤欲吐 欲吐不吐 則胃脘如寒 凡此鳴眩欲吐如寒 皆火風數舉之所致也 風者 木也 木剋其土 則倮蟲不滋 不滋 燥而不潤也 木氣內逆 不能樞轉從外 則祛脇氣并 化而爲熱 熱鬱於下 則小便黃赤 熱鬱於上 則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熱滋于下不和于中 則腸鳴飧泄 少腹痛 注下赤白 熱鬱于下 不和于中 甚則嘔吐 膈咽不通. (素問直解)

黃: 厥陰木勝則土敗 腹痛腸鳴 泄注赤白 小便黃赤者 肝脾下陷之病 心痛支脇 膈咽不通 耳鳴頭眩嘔吐者 膽胃上逆之病也. (素問懸解 至眞要大論 八十)

咽하여 通하지 않으며 아래로는 殞泄, 少腹痛하며 赤白의 泄利를 하니, 모두 肝經의 脈氣가 미치는 곳이며 木邪가 腸胃를 침범한 것이다.”고 하였다²¹⁾.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六氣가 서로 偏勝하면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厥陰이 勝하면 耳鳴, 頭眩, 眩暈을 수 없이 吐하려 하고 胃脘에 寒氣가 있는 듯하며, 거센 바람이 자주 불고 倮蟲이 잘 성장하지 못하며, 肘脇部에 積聚가 발생하여 熱로 변화하며 小便이 黃赤하고 胃脘部에서 心에 해당하는 부위에 통증이 있고 위로 兩脇部에 이르며 腸鳴, 殞泄, 少腹痛이 발생하고 赤白의 泄瀉를 하며 심하면 嘔吐하고 胸膈과 咽喉가 不通합니다.

【考察】

이 문단은 風邪가 왕성하여 厥陰이 勝하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나열한 것으로 대부분의 제가들이 일치된 해석을 보인다. 厥陰風木의 기운이 勝하여 風動하므로 耳鳴, 頭眩하고, 木邪가 胃를 손상시켜 胃虛寒하므로 吐하려 하는 것이다. 脇部는 肝經의 流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肝臟의 해부학적 위치와도 일치하는 곳으로 이 부위에 邪氣가 모이게 되면 痛症을 일으키고, 이것이 化熱하여 小腸에 침입하게 되면 小便色이 黃赤하게 된다. 게다가 木邪가 肝經에 영향을 미치거나 腸胃를 침범하게 되면 胃脘부위에서 心까지 痛症이 있고, 腸鳴, 殞泄, 少腹痛, 赤白痢하며 심하면 嘔吐하고 목구멍이 막혀 通하지 않게 된다.

“厥陰之勝”에서 나열한 증상들은 앞에서 언급한 ‘厥陰司天의 해’의 “風行太虛 雲物搖動 目轉耳鳴.”, ‘木鬱之發時’의 “民病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膈咽不

通 食飲不下 甚則耳鳴眩轉”의 증상과 매우 비슷한데 그 이유는 역시 厥陰風木과 연관지을 수 있고, 耳鳴 또한 肝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위의 증상들과 현대의학과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耳鳴, 頭眩, 欲吐하다가 심해지면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腸鳴殞泄 少腹痛 注下赤白 嘔吐 膈咽不通하는 것은 眩暈에 따른 자율신경계 실조증으로 인한 증상과 유사하다. 이³⁷⁾의 연구에 따르면 회전성 현기증으로 진단된 가운데 耳鳴을 병발증으로 동반한 비율이 45%에 달하며, 증상별 병발 빈도도 惡心, 嘔吐, 頭痛, 耳鳴, 上熱感, 項部強直感, 無力感, 難聽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것은 《內經》 원문에 언급한 증상들과 매우 비슷하다. 게다가 정³⁸⁾, 이³⁹⁾, 박⁴⁰⁾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眩暈과 함께 병발하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에 대한 증상들도 原文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상기 내용은 메니에르병이나 BPPV(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 등에 의해 발생한 眩暈과 이로 인한 자율신경계 실조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된다.

【原文】

帝曰 善 客主之勝復 奈何?

岐伯曰 客主之氣 勝而無復也^[1].

帝曰 其逆從何如?

岐伯曰 主勝逆 客勝從 天之道也^[1].

帝曰 其生病何如?

岐伯曰 厥陰司天 客勝則耳鳴掉眩 甚則欬 主勝則胸脇痛 舌難以言^[2].

【校註】

[1] 客主之氣 勝而無復也. 主勝逆 客勝從 天之道也. : 景岳, 張, 王, 馬蒔, 吳, 高, 黃^①은 비슷한

① 景岳: 客者天地之六氣 主者四時之六步 客氣動而變 主氣靜而常 氣強則勝 時去則已 故但以盛衰相勝而無復也 客行天命 運動不息 主守其位 祇奉天命者也 主勝客 則違天之命而天氣不行 故爲逆客勝主 則以上臨下而政令乃布 故爲從.

王: 客謂天之六氣 主謂五行之位也 氣有宜否 故名有勝復之者 客主自有多少 以其爲勝 與常勝 殊客承天命 部統其方 主爲之下 固宜祇奉天命 不順而勝 則天命不行 故爲逆也 客勝於主 承天而行理之道 故爲順也.

주장을 하였다. 張^②은 “客氣란 바로 司天在泉과 左右의 間氣이니 하늘에 있는 六氣이다. 하늘은 땅의 밖에서 싸고 있으면서 泉의 아래로부터 六氣가 돌아가는 것이 하늘의 道이다. 主氣란 五方四時의 정해진 자리이니, 땅의 道이며 땅은 하늘에 순종하여 받드나니, 이 때문에 主氣가 勝하면 逆하고 客氣가 勝하면 從함이 되어 하늘의 道에 순종함이다.”고 하였다²¹⁾.

[2] 厥陰司天 客勝則耳鳴掉眩 甚則欬 主勝則胸脇痛 舌難以言. : 景岳, 王, 張, 黃^③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景岳^④은 “初氣에서 三氣까지는 天氣가 주장한다. 巳亥年 厥陰이 司天함에 風木의 客으로써 厥陰少陰少陽의 主에 加함이다. 만일 客이 勝하면 木氣가 위에서 動하여 風邪가 勝하므로 耳鳴하고 掉眩하며 심하면 기침한다. 만일 主氣가 勝하면 火가 木邪를 끼니, 相火에 있으면 胸脇이 痛하는데 心包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고 君火에 있으면 혀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心이 舌에서 開竅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吳^⑤는 “客氣가 勝한 경우는 病이 標에 생긴 것이고 主氣가 勝한 경우

에는 病이 本에서 생긴 것이다. 厥陰은 肝木이니 그 脈이 목과 이마로 들어가므로 耳鳴하고 風의 성질은 불안정하므로 흔들리고, 風氣가 눈에서 요동하므로 眩하니 眩은 눈앞이 캄캄한 것이다. 肝葉이 脇部에 분포하고 肝脈이 上膈하여 脇肋部에 분포하며 또 手厥陰과 對化하여 그 脈이 胸中에서 시작하여 脇部로 나와 옆구리로 내려가므로 胸脇痛이 발생한다. 肝은 筋을 주재하니 筋이 急하므로 혀가 굳어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하였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시길 “좋습니다. 客氣와 主氣의 勝하고 復함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客氣와 主氣는 勝함은 있지만 復함은 없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길 “그 逆從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主氣가 客氣를 勝하면 逆이고 客氣가 主氣를 勝하면 從이니 이것이 天道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길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病證

馬蒔: 此言客主之氣 有勝無復 其民病則異 其治法則統 其正味則各有所生也. 蓋司天在泉 有勝則有復至於客主之氣 則有勝而無復 但客承天命 而主爲之下 如主不能奉天之命 而反勝客氣 則爲逆祇奉天命 而客氣勝主 則爲從 此乃天之道也.
吳: 客主之氣 以多爲勝 與常勝不同 客氣 承天而行主爲之下 固宜祇奉天命 勝則違天而逆矣客勝于主 內承天也 故爲從 從謂之天道.
高: 一歲之中 有加臨之客氣 有六位之主氣 或主氣勝客氣 或客氣勝主氣 有勝則復 帝故問之 合六氣而論之 有勝則有復 而客主之氣 同時同位 主氣 一定 客氣 變遷 故但有勝而無復也. 六氣主歲每歲皆同 氣之常也. 加臨客氣 隨司天在泉而遷轉 氣之暫也. 常可屈而暫不可屈 故主氣勝客氣 則爲逆而客氣勝主氣 則爲從 此因司天而有客氣之勝 故曰天之道也.
黃: 天爲客 地爲主 客主之氣 有勝無復 主勝客爲逆 客勝主爲從 此天之道也.
② 張: 客氣者 乃司天在泉及左右之間氣 在天之六氣也 天包乎地之外 從泉下而六氣環轉天之道也. 主氣者 五方四時之定位 地之道也 坤順承天 是以主勝爲逆 客勝爲從 順天之道也.
③ 王: 五巳五亥歲也.
張: 風木之客氣勝於上 是以耳鳴掉眩 厥陰肝脈 貫膈上注肺 甚則咳者 上淫之氣 內入於經也. 主勝則胸脇痛 肝筋之脈布胸脇也. 厥陰少陽主筋 二經之筋病則舌卷 故難以言 蓋客氣之從上而下 主氣之從內而上也. 再按 主歲之三氣 乃厥陰風木 君相二火 胸脇痛者 厥陰之初氣甚也. 舌難以言者二火之氣勝也.
黃: 厥陰司天則風木旺 耳鳴掉眩者 肝木升揚也. 咳者 膽火刑肺也 胸脇痛者 甲木刑胃也. 舌難言者風燥筋攣也. 甲乙同氣 故病如此. (素問懸解)
④ 景岳: 初氣終三氣 天氣主之也 巳亥年 厥陰司天 以風木之客 而加於厥陰少陰少陽之主 若客勝則木氣上動而風邪盛 故耳鳴掉眩 甚則爲欬 若主勝則火挾木邪 在相火則胸脇痛 心包所居也 在君火則舌難言 心開竅於舌也. (類經 運氣類 客主勝而無復 病治各有正味)
⑤ 吳: 凡言客勝者 病生于標 主勝者 病生于本 厥陰 肝木也 其脈 入頰頰 故耳鳴 風性不定 故掉搖風動于目 故令眩 眩目前玄也. 肝葉布于脇 肝脈上膈布脇肋 又以水厥陰爲對化 其脈 起于胸中出脇下腋 故胸脇痛 肝主筋 筋急 故舌難以言.

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厥陰司天에 客氣가 勝하면 耳鳴 掉眩하며 甚하면 咳嗽하고, 主氣가 勝하면 胸脇痛하고 혀가 굳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考察】

“主勝逆 客勝從 天之道也”라고 原文에서 설명하였는데 뜻은 “客勝者 病生于標 主勝者 病生于本”이라 하여 客氣가 勝하여 從하게 되면 병이 標에 발생하고, 主氣가 勝하여 逆하게 되면 병이 本에 발생한다고 하여 ‘天之道’를 인체의 병증에 부합하여 설명하였다.

“厥陰司天 客勝則耳鳴掉眩 甚則欬 主勝則胸脇痛 舌難以言.”에 대해서 景岳은 “客氣이 勝하면 木氣가 動하여 風邪가 勝하여 耳鳴掉眩하며 심하면 기침을 하고, 만일 主氣가 勝하면 火가 木邪를 挾하게 되어 心包가 머무는 胸脇部에 痛症이 있고 君火에 있으면 혀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뜻은 “肝經의 流注에서 風이 搖動하여 耳鳴掉眩하고, 肝葉의 분포부위 및 手厥陰經과 對化를 통해 胸脇痛이 발생하며, 肝主筋하여 혀가 굳어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병증의 기전에 대한 해석에는, 크게 보면 厥陰司天에 客勝과 主勝時에 나타나는 증상을 景岳은 臟腑陰陽의 氣로서 해석하였지만, 뜻은 厥陰經에 해당하는 肝經, 心包經으로서 설명하였다. 이처럼 전체적인 큰 틀, 예를 들어 客氣는 변하는 天地의 六氣이고, 主氣는 항상 일정한 五方四時라는 것과, 厥陰風木이 司天時에 主氣와 客氣에 대한 생각은 일치하나, 이런 運氣學적인 기본바탕을 가지고 病證의 기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제가들 저마다의 해석이 분분하다. 즉, 景岳, 王 등은 臟腑陰陽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뜻은 經脈으로 증상을 설명

하는 등 개별 증상의 기전을 똑같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耳鳴의 원인에 대해 厥陰司天의 해, 木鬱之發, 厥陰之勝 등의 運氣學적인 설명과는 일맥상통하다.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에서 나타난 ‘耳鳴’은 厥陰風木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厥陰風木의 성질을 인체에서 발현하는 臟腑인 肝과 관련된 정신의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眩暈을 동반한 자율신경계 실조증의 증상들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靈樞

2. 1. 邪氣藏府病形 第四

【原文】

黃帝曰 請問脈之緩急小大滑濇之病形何如?
岐伯曰 臣請言五藏之病變也. 心脈急甚者爲癭癧 微急爲心痛引背食不下. 緩甚爲狂笑 微緩爲伏梁在心下上下行時唾血. 大甚爲喉啞 微大爲心痺引背善淚出^[1]. 小甚爲善噦 微小爲消瘵^[2]. 滑甚爲善渴 微滑爲心疝引臍小腹鳴. 濇甚爲瘡 微濇爲血溢維厥耳鳴顛疾^[3].

【校註】

[1] 大甚爲喉啞 微大爲心痺引背善淚出. : 楊^①은 “心脈에 이르는 氣가 심하여 氣가 咽喉에 까지 上衝하니 고로 咽喉가 막힌 듯하며 소리를 울리게 한다. 心脈이 약간 盛함에 風濕의 氣를 發하여 心을 치받아 痺痛이 되고 아픈 뒤에 背腧穴이 당김이 目系에 까지 이르니 고로 눈물을 잘 흘린다.”고 하였다. 景岳^②은 “心脈이 매우 大하면 心火가 上炎하여 고로 咽喉 중간에 끼인 듯한 소리가 난다 만약 心脈이 약간 大하면 心痺한 것이 등까지 당

① 楊: 心脈至氣甚 氣上衝於咽喉, 故使喉中啞啞而鳴也. 啞古介反. 心脈微盛發風溼之氣 衝心爲痺痛 痛後引背輪及引目系 故喜淚出也. (太素 卷十五 五臟脈診)
② 景岳: 心脈大甚 心火上炎也 故喉中啞然有聲. 若其微大而爲心痺引背善淚出者 以手少陰之脈挾咽喉連目系也. (類經 脈色類藏脈六變病刺不同)

으며 눈물을 잘 흘리는데 그 이유는 手少陰脈이 咽喉을 끼고 目系에 이어지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黃^③은 “心脈이 매우 大하면 心邪 스스로가 心에 있는 것이고, 약간 大하면 小腸의 邪氣가 스스로 小腸에 있는 것이다. 喉咽은 목구멍 사이에 氣가 막힌 것이다.”고 하였다.

[2] 小甚爲善噦 微小爲消痺. : 楊^④은 “脈이 小한 것은 陰에 속한다. 매우 小하면 心의 氣血이 모두 적고 心氣가 한랭한 것이다. 心氣가 매우 한랭하면 胃와 咽部에 氣가 취함되었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噦症을 일으킨다. 脈이 小하면서 왕성하지 않은 것을 微라하니, 小脈은 陰脈이다. 心氣가 속에서 熱이나 있는 경우 寒氣가 도래하여 격돌하면, 마침내 속의 熱이 더욱 심해져서 消痺症을 일으키게 된다. 痺은 熱이니, 속의 熱이 몸을 수척하게 하기 때문에 消痺症이라 한다.”고 하였다. 景岳^⑤은 “心脈이 매우 小하면 陽氣가 虛하고 胃土가 寒하므로 딸꾹질을 잘 한다. 만약 心脈이 약간 小하면 血脈이 약간 마르는 것으로 故로 消痺이 생긴다. 消痺은 皮膚와 肌肉이 마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張^⑥은 “心臟이 虛하면 즉 火土의 기운이 약해지고 故로 잘 噦하게 되고, 噦은 구역질이다. 무릇 五藏은 精을 간직하는 것을 主하는데, 五藏의 氣血이 모두 적게 되면 津液이 고갈되어 消痺이 생긴다. 消痺은 三消의 證으로 心肺는 上消를 主하고 脾胃

는 中消를 主하고 肝腎은 下消를 主한다.” 하였다.

[3] 瀦甚爲瘖 微瀦爲血溢維厥耳鳴顛疾. : 楊^⑦은 “脈이 원활하지 못한(瀦) 것은 陰脈이다. 瀦脈은 血이 많으면서 氣가 적다. 心은 舌을 주관하니, 心脈에 血이 왕성하면 舌部에 상충하기 때문에 瘖症을 일으켜 말을 할 수 없다. 약간 瀦하면 血이 약간 왕성한 것이니, 血이 약간 왕성할 경우에는 鼻口部에 넘쳐흘러 출혈되기 때문에 血溢症이라 한 것이다. 維厥은 血이 盛하여 陽維脈이 厥逆한 것으로 陽維脈이 상충하여 상부는 實하고 하부는 虛하여 耳鳴과 顛疾이 된다.” 하였다. 景岳, 張^⑧은 “心脈이 매우 원활하지 못하면 血氣가 상부에서 정체 되는데, 음성은 陽分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체되면 瘖症을 일으킨다. 약간 瀦하면 血溢症을 일으키니, 瀦脈은 당연히 血이 손상된 것이다. 維厥은 四肢의 厥逆症으로, 四肢는 모든 陽氣의 근본이므로 血이 쇠약하면서 氣가 정체된 것이다. 耳鳴症을 일으키면서 顛疾症을 일으키는 까닭은, 心도 귀에 開竅하니 心이 허약하면 神도 혼란해지기 때문이다. 瘖은 聲瘖症이다.”고 하였다. 黃^⑨은 “《難經》에 心脈이 매우 瀦하면 肺邪가 心에 전한 것이고 약간 瀦하면 大腸의 邪氣가 小腸에 전한 것이다.”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니 “脈이 緩急 小大 滑瀦한

③ 黃: 《難經》心脈大甚者心邪自于心也 微大者小腸邪自于小腸也. 喉咽 喉中氣塞也. (靈樞懸解邪氣藏府病形 六十五)
 ④ 楊: 小爲陰也. 小甚心之氣血皆少 心氣寒也. 心氣寒甚則胃咽氣有聚散故爲噦也. 小而不盛曰微, 小者陰也. 心氣內熱而有寒來擊, 遂內熱更甚發爲消痺. 痺 熱也 內熱消瘦 故曰消痺. (太素 卷十五 五臟脈診)
 ⑤ 景岳: 心脈小甚則陽氣虛而胃土寒 故善噦. 若其微小亦爲血脈枯少, 故病消痺. 消痺者 肌膚消瘦也. (類經 脈色類 藏脈六變病刺不同)
 ⑥ 張: 心臟虛則火土之氣弱 故爲善噦. 噦 嘔逆也. 夫五藏主藏精者也 五藏之血氣皆少 則津液枯竭而爲消痺. 消痺者 三消之證 心肺主上消 脾胃主中消 肝腎主下消也. (靈樞集注 卷一)
 ⑦ 楊: 瀦陰也 瀦者血多氣少 心主於舌 心脈血盛上衝於舌 故瘖不能言也. 微瀦血微盛也. 血微盛者溢於鼻口而 出 故曰血溢. 維厥血盛陽維脈厥也 陽維上衝則上實下虛 故爲耳鳴顛疾. (太素 卷十五 五臟脈診)
 ⑧ 景岳: 心脈瀦甚則血氣滯於上 聲由陽發 滯則爲瘖也. 微瀦爲血溢 瀦當傷血也. 維厥者 四維厥逆也. 以四支爲諸陽之本 而血衰氣滯也 爲耳鳴爲顛疾者. 心亦開竅於耳而心虛則神亂也. 瘖聲瘖也. (類經 脈色類 藏脈六變病刺不同)
 張: 心主言 心氣小故爲瘖. 血多故溢於上也. 維四維也. 心爲陽中之太陽 陽氣少故手足厥冷. 南方赤色入通于心 并竅於耳 心氣虛則故耳鳴顛疾. (靈樞集注 卷一)
 ⑨ 黃: 《難經》“心脈瀦甚者肺邪于心也, 微瀦者大腸邪于小腸也.” (靈樞懸解 邪氣藏府病形 六十五)

것 등의 病形은 어떠한가?” 라고 말했다.

岐伯이 “臣이 五臟의 病變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心脈이 매우 急한 것은 癭瘕症을 일으키고, 약간 急하면 心痛症을 일으키며 背部까지 당기면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매우 緩하면 狂笑症을 일으키고, 약간 緩하면 伏梁症이 心下部에 있으면서 상하로 오르내리며 때로 唾血症을 일으킨다. 매우 大하면 喉啞症이 되고, 약간 大하면 心痺症을 일으켜 背部까지 당기며 눈물이 잘 흐른다. 매우 小하면 噓氣症을 잘 일으키고, 약간 小하면 消痺症을 일으킨다. 매우 滑하면 渴症을 잘 일으키고, 약간 滑하면 心疝症을 일으켜 臍部까지 당기면서 하복부에 소리가 난다, 매우 瀼하면 瘡症을 일으키고, 약간 瀼하면 血溢症, 四肢厥冷症, 耳鳴症, 顛疾症 등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考察】

‘善淚出’에 대해 楊은 “心脈이 약간 盛함에 風濕의 氣를 發하여 心을 치받아 痺痛이 되고 아픈 뒤에 背腧穴이 당김이 目系에까지 이르니 고로 눈물을 잘 흘린다.”하여 足太陽經脈의 流注로서 해석한 것인 반면, 景岳은 “心脈이 약간 大하면 心痺한 것이 등까지 닿으며 눈물을 잘 흘리는데 그 이유는 手少陰脈이 咽喉를 끼고 目系에 이어지기 때문이다.”라 하여 手少陰經脈의 流注로서 해석하였다. 앞의 문장인 “微急爲心痛引背食不下”에서도 楊은 단순 背部로의 放散痛이 아닌 연관 穴位인 心俞穴의 통증으로 해석하여 足太陽經脈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景岳은 心經의 流注인 “上挾咽 繫目系”로 증상들을 설명하여 大甚의 경우는 心火上炎으로 喉部가 건조하여 막힌 듯한 소리가 날 수 있으나, 微大의 경우 心火의 증상으로 善淚出하기보다는 건조하고 마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心痺引背善淚出”의 해석은 ‘心痺의 痛症이 背部로 이어지며 눈물이 잘 난다’는 것 보다 ‘心痺의

痛症이 背部에까지 이어져서 눈물을 잘 흘린다.’는 楊의 해석이 더 참고할 만 하다.

“小甚爲善噓 微小爲消痺.”에 대한 주가들의 해석에서 ‘噓’의 기전은 心의 氣血이 모두 적고 心氣가 寒冷하여 胃氣가 寒하므로 발생한다고 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消痺’의 해석에서 楊은 “心氣가 속에서 熱이 나있는 경우 寒氣가 도래하여 격돌하면, 마침내 속의 熱이 더욱 심해져서 消痺症을 일으키게 된다.”하여 熱을 원인으로 해석한 반면, 景岳과 張은 血脈, 津液이 말라서 消痺症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앞에서 이미 脈小가 氣血皆少라 설명한바 있으므로 熱에 의한 實證으로 보기 보다는 津液, 陰液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虛證으로 해석한 景岳, 張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維厥’에 대한 주가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瀼脈은 血多氣少한 脈으로 楊은 ‘維’를 陽維脈으로 해석하여 陽維脈의 厥逆으로 上部가 血滯되어 耳鳴症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景岳과 張은 四肢厥逆으로 보고 血溢傷血하여 血衰氣滯로 四肢厥逆한다고 해석하였다. 陽維脈은 金門穴에서 시작하여 壺門穴까지 足에서 頭로 이러진 人身의 陽을 수호하는 奇經으로 ‘諸陽之會’인 頭에 많은 穴을 포함하고 있다³⁵⁾. 위의 경우 血이 왕성하여 口鼻로 넘친 후 陽維脈의 氣가 上衝, 上實下虛하게 되어 耳鳴, 顛疾이 발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다. 또 ‘維厥’을 血溢을 통한 傷血로 多血少氣한 상태가 血衰氣滯하게 되어 ‘諸陽之本’인 四肢의 厥逆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두 가지 주장 모두 참고할만하다.

“瀼甚爲瘡 微瀼爲血溢維厥耳鳴顛疾.”에 나타난 耳鳴을 포함한 함께 나타난 여러 증상들을 살펴보면 한의학적으로 血虛耳鳴의 辨證이 가능할 뿐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貧血의 증후와 상당히 유사하다. 失血 또는 체내의 血液不足, 心臟衰弱으로 인한 神經衰弱 및 히스테리로 인해 간헐적인 耳鳴,

口渴, 心悸怔忡, 얼굴에 華色이 없고 爪甲에 潤氣도 없으며 五心煩熱이 나타날 경우 血虛耳鳴으로 분류하며 이는 상기증상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¹³⁾. 또한 貧血의 증상은 몇 가지 인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Hb 농도가 7.5g/dl 이하로 떨어지면 심박동과 심박양의 증가로 휴식 시에도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심기능장애증상은 심근유지기능의 저하로 발생하며, 頭痛, 卒倒, 耳鳴, 眩暈 등을 호소할 수 있고, 피부나 점막으로 가는 혈류의 혈색소 농도의 감소로 창백하거나 말단이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⁴¹⁾. 그러므로 心脈微瀋時 血溢에 의해 傷血하여 나타난 耳鳴, 維脈 등의 상태는 현대의학에서의 貧血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2. 經筋 第十三

【原文】

手太陽之筋 起於小指之上 結於腕 上循臂內廉 結於肘內銳骨之後 彈之應小指之上 入結於腋下. 其支者 後走腋後廉 上繞肩胛 循頸出走太陽之前 結於耳後完骨. 其支者 入耳中. 直者 出耳上 下結於頤 上屬目外眥.

其病小指支肘內銳骨後廉痛 循臂陰 入腋下 腋下痛 腋後廉痛 繞肩胛引頸而痛 應耳中鳴痛引頤 目瞑良久乃得視¹⁾ 頸筋急則爲筋瘦頸腫. 寒熱在頸者 治在燔針 劫刺之 以知爲數 以痛爲輸. 其爲腫者 復而銳之.

本支者 上曲牙 循耳前 屬目外眥 上頤 結于角 其痛當所過者支轉筋. 治在燔針 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 名曰仲夏痺也.

【校註】

[1] 其病小指支肘內銳骨後廉痛 循臂陰 入腋下 腋

下痛 腋後廉痛 繞肩胛引頸而痛 應耳中鳴痛引頤 目瞑良久乃得視. : 楊^①은 “팔의 안쪽 부위를 臂陰이라 하며 瞑은 눈이 먼 것이다.”라고 하였고, 景岳^②은 “手太陽의 經筋은 새끼손가락에서 시작하여 올라와 손목을 지나 肘關節 내측 銳骨의 뒤쪽을 지나 겨드랑이 아래를 타고 어깨와 목을 따라 올라와서 귀 뒤쪽을 거쳐 턱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 目外眥에 속하게 된다. 고로 귀와 턱에 당기는 통증이 생기고 눈이 캄캄해졌다가 바야흐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直譯】

手太陽의 經筋은 새끼손가락에서 시작하여 腕關節에 연결되고, 위로 팔의 內廉을 따라 상행하여 肘關節 내측, 상완골 내측상과의 후방에 연결되며, 여기를 치면 새끼손가락 위에 저린 감이 느껴지며, 腋下부에 들어가 연결된다. 그 分支는 후방으로 腋部の 後廉으로 주행하다가 肩胛部를 감으면서 상행하고, 頸部를 따라 足太陽 經筋의 전방으로 나와서 귀의 후방 完骨에 연결된다. 그 分支는 귓속으로 들어간다. 직행하는 것은 귀의 상부로 나와서, 아래로는 頤部에 연결되고 위로는 눈의 外眥에 이어진다.

그 병은 새끼손가락이 뻣뻣하고 肘關節 내측 상완골의 내측상과 後廉에 통증이 있으며, 하박부의 陰分을 순행하여 腋下部로 들어가니 腋下부에 통증이 있으면서 腋部の 後廉에도 통증이 있고, 肩胛部를 휘감으면서 頸部로 상행하니 頸部가 당기면서 통증이 있으며, 응당 귓속이 울리면서 통증이 있고 頤部까지 당기며, 눈이 캄캄해졌다가 오랜 시간 후에야 비로소 볼 수 있다. 頸部の 근육이緊急하면 곧 筋瘦症, 頸腫症을 일으키므로, 寒熱邪가 頸部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燔鍼으로 劫刺함에

① 楊: 臂膕肉爲臂陰也. 瞑 目閉也. (太素 卷十三 經筋)

② 景岳: 手太陽之筋 起於小指 上結於腕 結於肘內銳骨之後 上結於腋下 上肩循頸 結於耳後 結於頤上屬目外眥 故其痛引耳頤則瞑目良久方可開視也. (類經 經絡類 十二經筋結支別)

달려있는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鍼을 놓고 痛處를 輪穴로 삼아야 하며, 그것이 腫氣를 일으킬 경우에는 다시 예리한 鍼으로 치료해야 한다.

本筋에서 갈라진 支筋은 頰車穴(曲牙)로 상행하여 귀의 전방을 따라 目外眥에 이르고 額部로 상행하여 額角部에 연결되니, 그 병은 당연히 지나가는 부위가 뻣뻣하면서 轉筋한다. 치료는 燔鍼으로 劫刺함에 달려있는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鍼을 놓고 痛處를 輪穴로 삼아야 하니 仲夏痺라 부른다.

【考察】

이 문단에서 나타난 耳鳴의 발생기전을 살펴보면, 첫째로 原文에서 “其痛當所過者支轉筋”처럼 經筋은 經絡과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증상을 발현함으로써 병리적인 상태임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手太陽經筋의 流注상 귀 뒤를 지나가므로 귀와 관련된 증상인 耳鳴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 근육학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⁴³⁾는 手太陽經筋의 流注에 해당하는 근육은 승모근, 안륜근, 흉쇄유돌근, 삼각근 등이라고 하였으며 이 중에서 흉쇄유돌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耳鳴이나 眼疲勞 등 안면부의 七竅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이³⁹⁾는 근막동통증후군에서 흉쇄유돌근의 발통점에 의해 유발되는 증상으로 안면의 제반 질환 및 두통 외에 현훈, 안구충혈, 오심, 균형감각 장애 등의 자율신경계적 증상과 청력의 감퇴를 일으킨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김⁸⁾은 흉쇄유돌근의

발통점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고막장근의 기능이 저하되어 청력의 감소와 耳鳴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교근에 발통점이 있거나 측두하악관절에 문제가 발생해도 耳鳴이 나타날 수 있다.

2. 3. 厥病 第二十四

【原文】

耳聾無聞 取耳中¹⁾ 耳鳴 取耳前動脈, 耳痛不可刺者 耳中有膿 若有乾聾 耳無聞也²⁾. 耳聾取手小指次指爪甲上與肉交者 先取手 後取足³⁾. 耳鳴取手中指爪甲上 左取右 右取左 先取手 後取足⁴⁾.

【校註】

[1] 耳聾無聞 取耳中. : 景岳, 黃^①은 “耳中이란 手太陽經의 聽宮穴이다.” 하였고, 楊^②은 “耳中이란 聽宮 角孫 등 穴이다.”고 하였다.

[2] 耳痛不可刺者 耳中有膿 若有乾聾 耳無聞也. : 景岳, 楊, 黃^③은 “聾은 귀지를 말한다. 만약 귀 안에 농이 있거나 또한 건조한 귀지가 있어서 혹시 통증이 있거나 듣지 못하면 모두 자참하지 않는다. 귀지가 없으면 귀가 저절로 낫는다.” 하였다.

[3] 耳聾取手小指次指爪甲上與肉交者 先取手 後取足. : 楊, 景岳, 黃^④은 “手少陽經에서 넷째 손가락에 이르는 것은 關衝穴이고 足少陽經에서 넷째 발가락에 이르는 것은 竅陰穴이다. 그 脈들은 모두 귓속으로 들어가므로 두 穴을 모두 취해야 한다.” 고 하였다.

① 景岳: 耳中 手太陽之聽宮也. (類經 鍼刺類 刺頭項七竅病)
黃: 耳中 手太陽之聽宮也. (靈樞懸解 厥病 七十七)
② 楊: 耳中 聽宮 角孫等穴也. (太素 卷十三 耳聾)
③ 景岳: 聾耳垢也. 若耳中有膿 及有乾聾 而或痛 或無聞者 皆不可刺之 膿垢去而耳自愈矣. (類經 鍼刺類 刺頭項七竅病)
楊: 耳痛者 有二 有膿 有乾擗抵 無所問者 不可刺也 而有聞聲者 可刺. (太素 卷十三 耳聾)
黃: 聾耳垢也. 垢塞耳竅 以致無聞 當以法去之 未可以刺愈也. (靈樞懸解 厥病 七十七)
④ 楊: 手少陽至小指次指即關衝穴 足少陽至小指次指即竅陰穴也. 其脈皆入耳中故二俱取之也. (太素 卷十三 耳聾)
景岳: 手小指次指爪甲上者 手少陽之關衝也. 後取足者 亦言小指次指足少陽之竅陰也. (類經 鍼刺類 刺頭項七竅病)
黃: 手小指次之爪甲上與肉交者 手少陽之關衝也. (靈樞懸解 厥病 七十七)

[4] 耳鳴取手中指爪甲上 左取右 右取左 先取手後取足. : 黃^⑤은 “가운데손가락의 爪甲上은 手厥陰經의 中衝이다. 耳病 또한 濁氣가 上逆한 것과 연관이 있으니 厥病이라 한다.” 하였으며, 景岳, 楊^⑥은 “가운데손가락의 爪甲上은 手厥陰經의 中衝이다. 좌측 귀가 울리면 우측을 취하고 우측 귀가 울리면 좌측을 취한다.”고 하였다.

【直譯】

耳聾症으로 들리는 것이 없으면 耳中을 다스리고, 耳鳴症은 귀 앞쪽의 動脈을 다스린다. 耳痛症 가운데 자침할 수 없을 때는 귀속에 膿이 있거나 혹은 耳垢가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이다. 耳聾症은 네 번째 손가락 발가락 爪甲위에서 肉部와 만나는 곳을 다스리는데, 먼저 손에서 다스리고 나중에 발에서 다스린다. 耳鳴症은 가운데 손가락 발가락의 爪甲 위를 取穴하는데, 좌측의 耳鳴症은 우측에서 다스리고 우측의 耳鳴症은 좌측에서 다스리되, 먼저 손에서 다스리고 나중에 발에서 다스린다.

【考察】

“耳聾無聞 取耳中.”에서 ‘耳中’을 景岳, 黃은 聽宮穴로 해석하였으나, 楊은 聽宮 角孫 등 穴로 주장하였고, “耳鳴 取耳前動脈.”에서 ‘耳前動脈’을 景岳, 黃은 耳門穴로, 楊은 和髎, 聽會 등 穴이라 하였다. 聽宮穴은 耳珠前 中央 凹陷處로 귀의 앞 가운데부분에 위치하며 耳鳴, 耳聾뿐만 아니라 中耳炎, 外耳炎, 聾耳, 難聽 등 귀의 병증에 다양하게 취할 수 있지만, 角孫의 경우 耳尖上方에 위치하여 귀와 관련된 병증인 耳腫痛을 치유하기는 하나 偏頭痛, 齒痛 등에 多用하여 耳鳴, 耳聾은 주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耳中은 聽宮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

다 생각 된다³⁵⁾. ‘耳前動脈’은 귀 앞쪽의 박동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耳門穴은 耳珠上切痕 前方의 陷凹處에 위치하여 耳聾, 耳鳴, 中耳炎 등 귀와 관련된 병증을 주치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골안와동맥이 지나가고 있어 박동이 느껴지는 부위이고, 和髎穴은 耳門穴 前上方 5분에 위치하여 耳鳴, 外耳炎, 牙關緊急의 주치를 가진 곳으로 중측두동맥이 지나고 있으며, 聽會穴은 耳珠前下方에 위치하며, 耳鳴 耳聾, 中耳炎 등의 주치를 가지고 중측두동맥, 안면횡동맥 등이 지나고 있으므로 세 개의 혈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³⁵⁾.

“耳聾取手小指次指爪甲上與肉交者”가 의미하는 곳은 關衝穴로 手少陽三焦經의 井穴이며 經脈 流注상 “挾耳後 入耳中 出走耳前”하고, 足小指次指爪甲上은 竅陰穴로 足少陽膽經의 井穴이며 流注상 “支者 從耳後 入耳中 出走耳前”하므로 두 經脈 모두 流注상 귀를 포함하기에 경맥기운의 조절로서 귀의 병증을 다스릴 수 있어 耳聾에 取穴하는 것은 타당하다³⁵⁾.

“耳鳴取手中指爪甲上”이 의미하는 곳은 中衝穴로 手厥陰心包經의 井穴이나 流注상 귀와 관계없으며, 穴 자체의 주치도 귀와 관계하지 않고 또 足에 해당하는 穴은 존재하지 않기에 楊의 주장과 같이 “刺鍼에 대해 상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옳다고 사료된다³⁵⁾.

이 문단에 나타난 耳鳴은 膿이 있는 것으로 보아 膽虛耳鳴 또는 聾耳性 耳鳴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대의학의 염증성 질환과도 유사하다. 膽虛耳鳴의 경우 少陽의 膽氣가 원활하지 못한 중에 風邪가 침범하여 火가 消散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耳腫痛, 耳內에 滲出物이 흘러 膿血로 변하고 몸에 寒熱이 발생할 수 있으며, 聾耳性 耳鳴의 경우 中耳炎, 內耳炎, 耳硬化症 등에 의해 발병하

⑤ 黃: 手中指爪甲上 手厥陰之中衝也 耳病亦緣濁氣上逆 故謂之厥病. (靈樞懸解 厥病 七十七)
 ⑥ 景岳: 手中指爪甲上 手厥陰之中衝也 左鳴者取其右 右鳴者取其左. (類經 鍼刺類 刺頭項七竅病)
 楊: 手之中指手心主脈 《明堂》不療於耳 足之中指十二經脈 並皆不上 今手足中指皆療耳鳴 今刺之者未詳 或可絡至 繆刺也. (太素 卷十三 耳聾)

는 것으로 耳內膿出, 疼痛, 頭痛, 眩暈, 惡心 등이 수반될 수 있다¹³⁾. 염증성 질환의 증상으로는 급속히 진행되는 難聽과 耳鳴, 眩氣症 및 惡心, 嘔吐 등이 있으며 眩氣症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되지만 耳鳴과 難聽은 지속될 수 있다. 또 박⁴⁴⁾의 연구에 따르면 전정신경염이나 미로염 및 바이러스성 신경미로염을 포함하는 전정 신경병증에서는 眩暈과 더불어 惡心, 嘔吐, 耳鳴, 難聽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에 刺鍼을 하지 않는 것은 귀에 직접적인 刺鍼을 禁하는 것이지 穴들의 주치를 살펴 보건테 주변 穴의 刺鍼을 통한 증상의 개선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4. 口問 第二十八

【原文】

黃帝曰 人之耳中鳴者 何氣使然?

歧伯曰 耳者 宗脈之所聚也 故胃中空則宗脈虛 虛則下溜 溜脈有所竭者 故耳鳴^[1]. 補客主人手大指爪甲上與肉交者也^[2].

【校註】

[1] 耳者 宗脈之所聚也 故胃中空則宗脈虛 虛則下溜 溜脈有所竭者 故耳鳴. : 景岳^①은 “手足三陽三陰의 경맥은 모두 귓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도 역시 모든 경맥이 모이는 것이다. 陽明은 모든 경맥이 만나는 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胃 속이 공허하면 모든 경맥이 허약해지고 모든 경맥이 허약하면 陽

氣가 상승하지 못하여 下焦로 흘러내리며 下焦로 흘러내리면 上焦가 고갈되는데 경미하면 耳鳴症을 일으키고 심하면 耳聾症을 일으킨다. 그러나 少陽經脈의 邪氣가 매우 왕성하면 경맥의 氣가 막혀 耳鳴症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虛한 자는 차츰 차츰 그렇게 되고 實한 자는 갑작스러우며 虛한 자는 많고 實한 자는 적다. 그 변별은 邪氣가 있는 것과 邪氣가 없는 것에 달려있을 뿐이므로 學者는 당연히 추리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楊^②은 “인체에는 手足의 少陽, 太陽 및 手陽明 등 다섯 經絡은 모두 귓속에 들어가므로 宗脈이 모이는 곳이라 한다. 溜脈은 귀에 들어가는 맥으로, 이것이 고갈되어 통하지 않고 虛하므로 耳鳴이 생긴다.”고 하였다. 張^③은 “이것은 經脈의 血氣를 말하는 것으로 胃에서부터 생겨나서 臂에서 시작된다. 무릇 肺는 百脈을 거느리므로 宗脈이라는 것은 百脈의 우두머리로 肺가 이것을 主한다. 耳는 宗脈이 모이는 곳이며 百脈의 血氣와 水穀이 所生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胃가 空虛하면 宗脈이 虛하여 脈氣가 아래로 흐르니 脈中の 血氣는 고갈되어 귀가 울게 된다.”고 하였다. 黃^④은 “胃氣가 空虛하면 宗脈이 허약하여 淸氣는 아래로 흐르고 濁氣가 역상하여 脈이 竭하여 귀가 울린다. 竭이라는 것은 濁陰이 盛하고 淸陽이 고갈된 것이다.”고 하였다.

[2] 補客主人手大指爪甲上與肉交者也. : 景岳, 楊, 張, 黃^⑤은 “客主人은 足少陽經의 穴로서 手足少陽과 足陽明의 交會穴이고, 엄지손가락 손톱 위는 手

① 景岳: 手足三陽 三陰之脈 皆入於耳中 故耳亦宗脈之所聚也. 陽明爲諸脈之會 故胃中空則宗脈虛 宗脈虛則陽氣不升而下溜 下溜則上竭 輕則爲鳴 甚則爲聾矣. 然少陽太盛 壅窒爲鳴者 亦有之 但虛者漸而實者暴 虛者多而實者少 其辨在有邪 無邪耳. 學者當推廣之. (類經 疾病類 口問十二邪之刺)

② 楊: 人耳有手足少陽 太陽 及手陽明等 五絡脈 皆入耳中 故曰宗脈所聚也. 溜脈 入耳之脈溜行之者也. 有竭不通虛故耳鳴也.(太素 卷二十七 十二邪)

③ 張: 此言經脈之血氣 資生於胃而資始於腎也. 夫肺朝百脈 宗脈者 百脈所宗 肺所主也. 耳者 宗脈之所聚也. 百脈之血氣水穀之所生也. 故胃中空則宗脈虛 虛則脈氣下溜矣 脈中之血氣有所竭 故耳鳴也.

④ 黃: 胃氣空乏 宗脈虛弱 淸氣下溜 濁氣上逆 脈有所竭 故耳鳴. 竭者 濁陰盛而淸陽竭也.(靈樞 懸解 口問 五十八)

⑤ 景岳: 客主人 足少陽經穴 爲手足少陽 足陽明之會. 手大指爪甲上者 手太陰之少商穴 爲肺氣所出之井 故皆當補之 以助其陽氣.(類經 疾病類 口問十二邪之刺)

楊: 手陽明入耳 過客主人也. 手大指爪甲上 手太陰脈 是手陽明之裏 此陰陽皆虛 所以耳鳴 故並補之 (太素卷二十七 十二邪)

太陰의 少商穴로 肺氣가 나오는 井穴이므로 모두 마땅히 補하여 그 陽氣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사람의 귓속이 울리는 것은 무슨 氣가 그러하게 하는가?” 라고 말했다.

岐伯이 “귀는 모든 經脈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胃 속이 비면 모든 經脈이 허약해지고 허약해지면 아래로 흐르다가 經脈이 고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耳鳴症이 생기는데, 客主人과 엄지손가락 손톱 위와 肉部가 만나는 곳을 補한다”고 말했다.

【考察】

“耳者 宗脈之所聚也”에서 宗脈의 의미가 제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귀로 들어가는 經脈은 足陽明胃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 이 다섯 가지로 景岳이 주장한 “手足三陽三陰의 경맥은 모두 귓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도 역시 모든 경맥이 모이는 곳이다.”와 楊이 주장한 手陽明大腸經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宗氣는 穀食이 胃에 들어오면 脾에서 傳化되어 行上焦而積하여 氣海之間인 膻中에 모이고 喉嚨에서 出하며 心脈을 貫通하며 呼吸을 行하게 하여 脈中으로 行하며 아래로 營衛를 通하게 한다³⁵⁾. 결국 宗氣는 穀氣로부터 생성된 것이므로 胃中이 空虛하게 되면 역시 宗脈도 空虛하며, 이에 귀로 들어가는 溜脈도 虛하게 되어 耳鳴이 발생하게 되므로 張과 黃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문단에서 언급한 耳鳴은 中氣虛로 인해 宗脈이 虛弱하여 脈管內의 氣가 鬱結함으로써 耳鳴, 四肢無力, 面黃, 飲食量減少 등의 증상이 나타난 氣虛 耳鳴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³⁾.

“客主人”은 足少陽膽經의 上關穴의 異名으로 耳門穴 前方 5분에 위치하며, 耳鳴, 耳聾, 聽耳 등의 주치를 가진 穴이고³⁵⁾, “手大指爪甲上與肉交者”는 少商穴로 手太陰肺經의 井穴로 肺는 百脈을 朝하므로 宗脈의 虛로 인한 耳鳴 때에는 少商을 취한 것³⁵⁾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5. 決氣 第三十

【原文】

黃帝曰 六氣者 有餘不足 氣之多少 腦髓之虛實 血脈之清濁 何以知之?

岐伯曰 精脫者 耳聾 氣脫者 目不明 津脫者 腠理開 汗大泄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色夭 腦髓消 脛痠 耳數鳴¹¹⁾ 血脫者 色白 夭然不澤 其脈空虛 此其候也.

【校註】

[1]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色夭 腦髓消 脛痠 耳數鳴. : 景岳, 楊, 張^①은 “液은 骨에 흘러들고 腦를 補益하며 皮膚를 潤澤하게 하는 바 液이 빠져나가 骨髓가 가득 차지 못하므로 屈伸이 여의치 않다. 그리고 얼굴과 腦가 위축하고 正氣가 저리며 皮부가 滋養을 받지 못하므로 색이 메마르고 선명하지 않다. 液이 빠져나가면 陰이 虛하므로 귀가 울린다.”고 하였다.

【直譯】

張: 補客主人 與手太陰之少商. 客主人 乃足少陽之脈 補之以引下溜之脈氣上行.

黃: 足少陽脈 循兩耳 自頭走足 補足少陽之客主人 使之降也. 手大指爪甲上與肉交者 手太陰之少商補之使其收斂濁氣而下行也. (靈樞懸解 口問 五十八)

① 景岳: 液所以主骨益腦 而澤皮膚者 液脫則骨髓無以充故屈伸不利而腦消脛痠 皮膚無以滋故色枯而夭 液脫則陰虛故耳鳴也. (類經 藏象類 精氣津液血脈脫則爲病)

楊: 骨節相屬之處 无液 故屈伸不利无液潤澤皮毛色夭 腦髓無補 故腦髓消脛痠耳鳴 脞衡孟反. (太素 卷二 六氣)

張: 液淖澤於骨 補益骨髓 故液脫者 骨屬屈伸不利 不能潤澤皮膚 故毛色夭焦也. 腎主骨而骨髓上通於腦 故腦髓消而脛痠耳鳴.

黃帝께서 “여섯 가지 氣化된 것 가운데 有餘, 不足, 氣의 多少, 腦髓의 虛失, 血脈의 清濁 등은 어떻게 아는가?” 라고 말했다.

岐伯이 “精이 허탈할 경우에는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氣가 허탈할 경우에는 눈이 밝지 못하며, 津이 허탈할 경우에는 腠理가 열려 땀을 크게 배설하고, 液이 허탈할 경우에는 관절의 屈伸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안색이 나빠지며 腦髓가 감소하면서 정강이가 시리고 귀에 소리가 자주 나며, 血이 허탈할 경우에는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어두침침하여 潤澤하지 않고 그 經脈이 空虛해지니, 이것이 바로 그 징후이다”고 말했다.

2. 6. 海論 第三十三

【原文】

黃帝曰 四海之逆順奈何?

岐伯曰 氣海有餘者氣滿胸中怩息面赤 氣海不足則氣少不足以言. 血海有餘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亦常想其身小狹然不知其所病. 水穀之海有餘則腹滿 水穀之海不足則飢不受穀食. 髓海有餘則輕勁多力自過其度 髓海不足則腦轉耳鳴脛痠眩冒目無所見懈怠安臥^[1].

【校註】

[1] 髓海有餘則輕勁多力自過其度 髓海不足則腦轉耳鳴脛痠眩冒目無所見懈怠安臥. : 景岳, 楊^①은 “髓海가 충족된 것은 바로 有餘한 것이니, 그러므로 몸이 가벼우면서 굳세어 변이 잘 통하고 힘이 세어 저절로 남보다 정도를 초월하면서 병이 없다. 만약 髓海에 精氣가 부족하면 상부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腦轉症을 일으키는 까닭은 腦가 공허하여 빙빙 돌아 旋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耳鳴症을

일으키는 까닭은 腦髓가 허약할 경우에 精이 반드시 쇠약하여 陰虛하면 耳鳴症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脛痠症을 일으키는 까닭은 腦髓가 공허하여 힘이 없기 때문이고, 眩冒症을 일으켜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증상을 일으키면서 몸이 나른하여 편안하게 누워 있으려는 증상 등을 일으키는데, 모두 腦髓를 精의 부류로 여겼기 때문이다. 精이 쇠약해지면 氣가 消散하여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까닭이다.”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四海의 逆證과 順證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岐伯이 “氣海에 邪氣가 有餘하면 邪氣가 胸中에 가득 차서 답답하고 숨이 차며 얼굴이 붉어지고, 氣海에 精氣가 不足하면 기운이 약하여 말소리에 힘이 없다. 血海에 邪氣가 有餘하면 항상 자신의 몸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울체되어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며, 血海에 精氣가 不足하면 항상 자신의 몸이 작다고 생각하면서 위축되어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한다. 水穀의 海에 邪氣가 有餘하면 복부가 부어오르고 水穀의 海에 精氣가 不足하면 배가 고프더라도 곡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髓海에 邪氣가 有餘하면 몸이 가벼우면서 굳세고 힘이 세어 저절로 그 정도를 초월하고, 髓海에 精氣가 不足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울리며 정강이가 저리고 眩冒症이 생겨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증상, 몸이 나른하여 편안하게 누워 있으려는 증상 등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考察】

① 景岳: 髓海充足 卽有餘也 故身輕而勁 便利多力 自有過人之度 而無病也. 若其不足 則在上者爲腦轉 以腦空而運 似旋轉也 爲耳鳴 以髓虛者 精必衰 陰虛則耳鳴也 爲脛痠 髓空無力也 爲眩冒 忽不知人 爲目無所見 懈怠安臥 皆以髓爲精類. 精衰則氣去 而諸證以見矣. (類經 經絡類 人之四海)

楊: 腦減不滿顛中 故腦易轉 喜耳鳴也. 髓不滿脛中故行痠疼也. 髓虛少筋肉等精液不足 故眩冒 無所見也. 髓虛四肢腰脊無力故懈怠安臥也. 痿息官反. 眩玄遍反. 瞑目亂也. 目冒亡到反覆也. (太素 卷五 四海合)

四海의 有餘不足에 따른 증상을 설명한 문단으로 주가들의 해석에 있어 크게 이견은 없었다. “髓海有餘則輕勁多力自過其度 髓海不足則腦轉耳鳴脛痠眩冒目無所見懈怠安臥.”에서 景岳은 “髓虛者 精必衰”라 하여 髓海不足의 증상은 결국 精不足 증상과 같은 의미로 보았다. 《東醫寶鑑》 〈頭門〉에서는 ‘腦爲髓海’라 하여 위의 문장으로 설명하였고, “뇌는 골수의 바다이므로 모든 골수는 뇌에 속한다. 뇌에서부터 콩무늬뼈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수가 오르내리는 길이다. 골수는 뻗속에 차 있는데 골수가 상하면 뇌수가 줄어들면서 병으로 움직이기 싫은 증이 생겨 다닐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으며, 〈耳門〉에서는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다 腎精이 부족하여 陰이 虛해져서 火가 動했기 때문이다. 痰火로 나는 소리는 심하고, 腎氣가 虛하여 나는 소리는 약하다”고 하여 髓海不足으로 인한 耳鳴은 약하게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⁴⁵⁾.

앞의 〈決氣〉의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色夭 腦髓消 脛痠 耳數鳴”의 내용과 함께 이번 문단의 “髓海不足則腦轉耳鳴脛痠眩冒目無所見懈怠安臥.”는 모두 虛證을 바탕으로 耳鳴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房勞나,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 또는 老化에 의한 것으로 耳鳴 하나의 증상만을 살펴보다도 이¹⁾는 연구를 통하여 연령 증가와 함께 청력 소실 및 耳鳴이 같이 생기는 기전은 청각 기관의 기능이 많이 쇠퇴하여 청각 기관의 퇴행에서 청신경의 비정상적인 신호의 방출과 인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耳鳴이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김¹⁶⁾은 연구를 통해 耳鳴이 가중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혹은 노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⁴⁶⁾는 腎精이 虛損되면 청력기능이 떨어져 耳聾, 耳鳴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蔡¹³⁾의 耳鳴의 분류에 따르면 腎精이 부족하고 宗脈이 허약한 중에 風邪가 침범하였거나 혹은 腎氣가 極虛한 경우 耳鳴과 더불어 消瘦, 口乾, 腸

燥, 手足心熱이 발생할 수 있으며 腎陽이 虛할 때는 小便이 頻數하고 足部와 膝蓋가 寒冷하다. 이것은 〈決氣〉와 〈海論〉에서의 液脫과 髓海不足으로 인해 발생한 耳鳴 및 그 외 증상들과 상당히 흡사하여 腎虛 또는 陽虛耳鳴으로 辨證할 수 있으며 또한 노화와 그에 따른 청각 기관의 퇴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IV. 結 論

1. 《素問》 〈通評虛實論〉의 耳鳴은 현대의학에서의 糖尿合併症이나 癲狂症에서 병발된 사례를 찾아볼 수는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하므로 좀 더 많은 증례의 축적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素問》 〈六元正紀大論〉의 耳鳴은 木氣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심리적 원인으로 氣機의 升發과 疏泄에 영향이 미치면 肝鬱證이 발생하여 다른 증상과 더불어 耳鳴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즉, 불안, 우울, 초조 및 수면장애 등은 肝火耳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內經》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素問》 〈至真要大論〉의 “耳鳴, 頭眩, 欲吐”와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腸鳴飧泄 少腹痛 注下 赤白 嘔吐 隔咽不通”의 증상들은 痰火耳鳴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대의학에서의 메니에르병과 BPPV 등에 의해 발생한 眩暈 및 惡心, 嘔吐, 頭痛, 耳鳴, 上熱感, 項部強直感, 無力感, 難聽의 자율신경계 실조증과 유사하였다.
4. 《靈樞》 〈邪氣藏府病形〉 “微瀆爲血溢維厥耳鳴顛疾.”에서 心脈이 약간 瀆하면 血이 약간 왕성하여 血이 鼻口에 넘쳐흐르게 되므로 傷血되어 四肢厥逆症, 耳鳴, 顛疾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는 血虛耳鳴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頭痛, 卒倒, 耳鳴, 眩暈, 蒼백하거나 말단이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貧血의 증상과 유사하였다.

5. 《靈樞》〈經筋〉“應耳中鳴痛引頰”에서의 耳鳴은 手太陽經筋의 流注에 해당하는 근육중의 하나인 僞僞俞돌근의 발통점에서 유발되는 증상으로 안면의 제반 질환 및 두통 외에 현훈, 안구 충혈, 오심, 균형감각장애 등의 자율신경계적 증상과 청력의 감퇴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교근에 발통점이 있거나 TMJ에 문제가 발생해도 耳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經筋流注線上的의 筋肉 발통점에 의한 증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6. 《靈樞》〈厥病〉의 “耳痛不可刺者 耳中有膿”의 증상을 耳鳴의 수반증상으로 보았을 때 膽虛耳鳴 또는 聾耳性 耳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대의학에서는 중이염, 내이염에 동반된 耳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耳 자체에 자침을 하지 않는 의미이지 자침 자체를 禁하는 것은 아니었다.
7. 《靈樞》〈決氣〉의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色夭 腦髓消 脛痠 耳數鳴”과 《海論》의 “髓海不足則 腦轉耳鳴脛痠眩冒目無所見懈怠安臥.”는 腎虛耳鳴 또는 陽虛耳鳴으로 辨證할 수 있으며 房勞,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 또는 老化에 의해 청각 기관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고, 이러한 청각 기관의 퇴행에서 청신경의 비정상적인 신호의 방출과 인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耳鳴이 증가하므로 耳鳴을 老化에 의한 한 증상으로 볼 수 있었다.
8. 《內經》에서의 耳鳴은 “風行太虛 雲物搖動”, “木鬱之發”, “厥陰之勝”에서의 厥陰風木, “液脫”, “髓海不足”의 虛證, 마지막으로 “腸胃之所生”, “胃中空”에서의 腸胃를 원인으로 발생한 風의 성질을 지닌 증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이승준, 이석기. 노인 환자에서 耳鳴에 대한 주파수 분석과 난청과의 관계.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07; 50:869-75.
2. 정연훈, 박홍준, 송정환, 유상준, 문성균, 박기현. 이명에 대한 Glutamate 길항제의 치료효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03;46:935-9.
3. 박시내, 여상원, 정상희, 이수진, 박용수, 서병도. 이명재혼련치료의 적용 방법과 치료효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02;45:231-7.
4. 김성희, 이상훈, 김부선, 권대구, 조태환. 耳鳴의 분석.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1995;38(1): 11-7.
5. 百萬基. 最新耳鼻咽喉科學. 서울:一潮閣. 1997: 64-5.
6. 전경명, 조규섭, 김진동, 이진춘, 이일우, 고의경. 이명의 자각적 표현과 주파수의 관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05;48:961-6.
7. 최익수, 안병주, 전병훈, 장진순, 성지영. 이명 환자에 있어서 간이정신진단 검사를 이용한 심리분석.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03;46: 475-80.
8. 김홍진, 박수연, 김종한, 최정화. 이명환자 5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2001;14 (2): 146-53.
9. 李旻. 醫學入門. 서울:大星文化社. 1984:41-2, 490.
10. 巢元方. 諸病源候論. 臺北:集文書局. 1976:283.
1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126.
12.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大星出版社. 1982: 484-6.
13. 蔡炳允. 東醫眼耳鼻咽喉科學. 서울:集文堂. 2004:250-5.

14. 신명섭, 성락기. 耳鳴의 병인병기 및 침구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994;3(1):157-80.
15. 김혜정, 김중호, 채병윤. 耳鳴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990;3(1):99-107.
16. 김운범. 耳鳴에 대한 평가지침 수립을 위한 임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2):403-7.
17. 최인화. 耳鳴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2001;14(2):134-45.
18. 김경준. 이명의 형태와 치료효율에 대한 임상적 분석. 대한외관과학회지. 1999;12(2):182-8.
19. 欽定四庫全書 黃帝內經素問 靈樞經. 서울:대성문화사. 1995:100, 152, 245, 261, 270, 272-4, 284-5, 289, 328, 352, 363, 367, 369, 371.
20.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대구: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金星印刷社. 2001;3:246-51, 5:282-92, 321-4, 8:250-2, 9:220-2, 239-45, 470-7, 500-11.
21.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 素問. 서울:여강출판사. 1995;2:198-201, 3:221-8, 4:270-2, 421-3, 449-51, 5:53-9, 81-9.
22.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 靈樞. 서울:여강출판사. 2000;1:179-84, 557-60, 2:132-4, 217-9, 253-5, 287-9.
23. 金達鎬, 李鍾馨.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 서울:의성당. 2001;上:654-5, 下:28-33, 550-1, 690-1, 708-9, 838-9, 864-5.
24. 金達鎬. 注解補注 黃帝內經 靈樞. 서울:의성당. 2002:133-6,440-2,629-30,682-3,709-11,732-3.
2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대성문화사. 1986.
26. 李克光, 鄭孝昌. 黃帝內經太素校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5;19-20, 120-1, 207-10, 388-9, 514-6, 909, 1046-7, 1107-8.
27.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學苑出版社. 2003.
28. 馬蒞. 新編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대성문화사. 1994:198, 300-2, 494-7, 569-70, 573-8, 596-9, 604-9.
29. 張介賓. 類經. 서울:법인문화사. 2006:131-2, 210-1, 372-3, 501-2, 657-8, 677-8, 683-4, 865-6, 1022, 1096, 1104-5, 1125, 1134-5.
30.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浙江省:浙江古籍出版社. 2002;素問:222-4, 349-51, 526, 584, 590-1, 608, 617-8. 靈樞:28-9, 132-3, 201-2, 224-6, 231, 236.
3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 127-9, 322-4.
3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北市:藥群出版社業有限公司. 1976:45-6, 168-9, 240, 261, 272-3, 282-3
33. 이현민, 조훈석, 신우진, 서상호, 박동일, 홍상훈, 김종원. 당뇨 합병증에 대한灸치료의 임상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1):294-300.
34. 송지형, 김태현, 김근우. 전광증 환자 치험 1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1;12(2):223-230.
35.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침구학. 경기:집문당. 2008;상:115, 187-9, 197, 217, 212, 222-4, 329-30. 중:7-8, 15-6, 223-4.
36. 김규석, 남혜정. 심박변이도 검사를 통한 내이 질환 환자들의 교감 신경 활성 패턴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9;22(1):133-40.
37. 이은, 박병욱, 고흥. 두위변환에 따른 회전성 현훈증에서 텍사탕가미방 투여 20례의 임상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15(5):1057-60.
38. 정용준, 신선호. 양성 발작성 자세변환성 현훈으로 의심되는 현훈증 환자를 자음건비탕가미방과 Dix-hallpike Maneuver로 치료한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0;21(1):181-4.
39. 이규진, 남혜정, 김운범. 메니에르환자 치험 2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3):158-64.
40. 박준영, 홍석춘, 황충연, 윤효진. 메니에르병

- 치험 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 19(2):288-95.
41. Kurt J, Isselbacher. Harrison's 내과학. 서울:도서출판정담. 1997:337-8.
42. 민영규, 정동환, 심상희, 박수연, 김종한, 최정화. 나력에 대한 문헌적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2):1-40.
43. 이석모, 정현영, 금경수. 靈樞 經筋篇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원진단학회지. 1999;3(1):294-332.
44. 박용호, 유미경, 최정화, 김종한, 박수연. 전정신경병증 환자 치험 1례에 대한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2):93-8.
45.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법인문화사. 1999: 488,576.
46. 오정대, 김경립, 이남환. 노년기 특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16(2): 222-35.
- 한의학용어의 영문표기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에 의거하였습니다.